

Pacific Magazine 의 내용

편집자의 편지.....	2
우남자유포럼 지상 중개: 이승만 건국 대통령과 한시.....	5
이승만 건국 대통령과 자유민주주의와의 만남.....	20
미국 독립 250주년이 한국에 주는 교훈: 자유분권 관점에서 본 미국 건국정신	25
침묵의 대가 — 아렌트의 거울 앞에 선 대한민국.....	33
이승만 대통령의 근대국민국가 건설 회상.....	39
숫자로 본 6·25 전쟁.....	47
AI 혁명과 부의 재편: 미래 리더가 이해해야 할 시장의 본질.....	48
대한민국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66
1. 역사적 사실과 역사 인식, 그리고 정치.....	67
참고: 우남 이승만 건국 대통령 취임사.....	77
2. 새역사국민운동 소개.....	81
3. 우남이 수강한 역사강의.....	89
연세대학교 이승만연구원 소식.....	93
연세대학교 이승만연구원 친우회 모집.....	96
연세대학교 이승만연구원 발전기금	97

편집자의 편지

연세대학교 이승만연구원 원장 양준모

이승만연구원은 소식지 성격의 잡지를 2026년 6월에 Pacific Magazine이라는 이름으로 발간하였습니다. Pacific Magazine은 이승만 건국 대통령께서 발간한 태평양잡지의 영문 명칭에서 따왔습니다.

창간호는 소식지의 형식으로 발간됐으나, 이번 가을호부터는 ISSN을 발급받아 일반 독자들의 읽을 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배포됩니다. Pacific Magazine은 우남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꿈꾸었던 나라를 만들고 지키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토론의 장을 제공하는 고품격 시사 잡지를 지향합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26년 6월 3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 이후 선거관리의 부실과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 행위들이 밝혀지고 있다. 1960년 3월 15일 실시된 제4대 대통령·제5대 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 조병옥이 선거 전에 사망하여 이승만의 대통령 당선은 사실상 확정된 상태였다. 따라서 자유당 정권이 부정선거를 강행한 핵심 목적은 자유당의 이기봉을 부통령으

로 당선시키는 것이었다.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됐고, 이승만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하야 의사를 밝혔다. 부정선거에 관한 실태조사에 따라 대통령이 하야 의향을 발표한 것은 아니다. 더욱이 부정선거가 선거 결과에 얼마나 미쳤는지도 따지지 않았다. 이승만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지시하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했지만 정치적 책임을 지고 하야를 결정한 것이다.

지금의 정치와는 전혀 다른 모습 통령은 어떤 대통령보다 더 민주
을 보였다. 우남 이승만 건국 대 화된 정치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1960.04.26 이승만대통령 하야 성명

나는 해방 후 본국에 들어와서 우리 여러 애국 애족하는 동포들과 더불어
잘 지내왔으니 이제는 세상을 떠나도 한이 없으나 나는 무엇이든지 국민이
원하는 것만 알면 민의를 따라서 하고저 한 것이며 또 그렇게 하기를 원하
는 것이다.

보고를 들으면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학도들을 위시하여 우리 애국 애족하
는 동포들이 내게 몇 가지 결심을 요구하고 있다하니 여기에 대해서 내가
아래 말하는 바를 할 것이며 한 가지 내가 부탁하고자 하는 바는 이북에서
우리를 침략하고 공산군이 호시탐탐하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그
들에게 기회를 주지 말도록 힘써 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첫째는 국민이 원하면 대통령직을 사임할 것이며 둘째는 지난번 정부통령
선거에 많은 부정이 있었다고 하니 선거를 다시 하도록 지시하였고 셋째는
선거로 인연 한 모든 불미스러운 것을 없애게 하기 위해서 이미 이기붕 의
장이 공직에서 완전히 물러가겠다고 결정한 것이다. 넷째는 내가 이미 합의
를 준 것이지만 만일 국민이 원하면 내각책임제 개헌을 할 것이다.

이상은 이번 사태를 당해서 내가 굳게 결심한 바이니 나의 이 뜻을 사랑하
는 모든 동포들이 양해해주어서 이제부터는 다 각각 자기들의 맡은 바를 행
해가며 다시 질서를 회복시키도록 모든 사람들이 다 힘써 주기를 내가 사랑
하는 남녀 애국동포들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바이다.

역사에서 비극적 사건에 대한 해법은 언제나 급하게 추진됐다. 우남은 견제와 균형을 갖춘 대통령제가 대한민국 건설에서 필수불가결한 일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우남은 ‘국민이 원하면’이라는 조건이지만 야당이 주장했던 내각제를 수용했다. 모두가 이성을 잃었고, 혼란 속에서 혁신적이고 합리적인 새로운 체제 구축하는 것과는 달리 기존의 제도를 파괴하는 일만이 남았다. 혁명이라는 말과는 거리가 먼 혼란의 정치로 대한민국의 정계는 소용돌이쳤다.

2026년 6월 3일 선거에서는 투표지가 부족해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들이 발생했다. 투표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개표 방송이 진행되고 예상 당선자들이 발표됐다. 투표수가 부족하여 투표를 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유권자들이 생겼다. 국가기관이 선거법 위반으로 서슬퍼렇게 국민을 다스리는 것과는 달리 자신의 잘못에는 관대했다.

국가기관이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했다. 공권력이 얼마나 참정권을 침해했는지 형량해서 다룰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공권력이 부정을 저질렀을 경우, 선거 전체에 대한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잃는다.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의 외침은 당연하고 정당한 것이다



선거 관리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 부정선거를 없애고자 독립기관을 만들었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제도 설계의 기본을 무시한 독립기관은 부패했다. 역사의 비극적 사건은 제도적 결함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고 있다..

우남자유포럼 지상 중개: 이승만 건국 대통령과 한시

이 글은 2023년 11월 16일 연세대학교 경영관에서 개최된 우남자유포럼에서 허경진박사가 발표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허경진 박사는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허균 시 연구』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이다.

허경진의 「이승만 대통령과 한시」는 이승만의 한시를 단순한 문학작품이 아니라 그의 성장 과정, 독립운동, 망명생활, 대한민국 건국과 대통령 재임 활동을 보여주는 역사 기록으로 해석한 글이다. 이승만은 본래 문학가가 아니라 정치가였으나, 어린 시절부터 전통 한학과 한시 창작을 체계적으로 익혔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시 짓기를 생활화하였다. 현재 확인된 그의 한시는 모두 271수이며, 독립협회 활동기, 한성감옥 수감기, 상하이 임시정부 시기,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독립운동기, 광복 이후 건국과 대통령 재임기 등 그의

생애 전반에 걸쳐 있다. 따라서 그의 한시는 개인적 감정을 표현한 문학작품인 동시에 한국 근현대사의 주요 국면을 증언하는 기록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1. 과거제도와 이승만의 한시 공부

조선시대 양반 사회에서 한문과 한시는 관직 진출을 위한 필수적인 학문이었다. 조선의 양반들은 관직과 학문, 농업 이외에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이 제한되어 있었고, 문과에 급제하기 위해 대체로 25년에서 30년 동안 한문 경전과 문장을 공부하였다. 특히 과거제도

의 1차 시험 가운데 하나인 진사시는 한시를 짓는 시험이었다. 진사시는 부와 고시를 중심으로 시행되었으며, 19세기에는 일정한 형식과 운자를 지키면서 7언 18운으로 장문의 과시를 짓는 능력이 요구되었다. 따라서 당시 지식인에게 한시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출세와 생존을 위한 실용적 능력이었다.

이승만도 이러한 전통 교육 환경에서 성장하였다. 그는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 『천자문』을 배워 여섯 살 무렵 모두 암송하였다. 『천자문』은 네 글자씩 구절을 구성하고 운을 맞춘 일종의 장편 운문으로, 글자와 지식을 동시에 익히게 하는 초급 교재였다. 『천자문』을 마친 뒤에는 오언 대구를 모은 『추구』를 배웠다. 『추구』는 자연과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대상을 서로 짝지어 표현함으로써 어린이들에게 한시의 대구법과 문장 구조를 익히게 하는 교재였다.

이승만이 여섯 살 또는 일곱 살 무렵 지었다고 전해지는 삼언시는 이러한 학습의 영향을 잘 보여준다.

風無手 搖樹木 月無足 橫蒼空

이 시는 바람과 달, 나무와 하늘을 서로 대응시키고, ‘손이 없음’과 ‘발이 없음’을 대구로 배치하였다. 일반적인 오언 형식이 아니라 삼언으로 표현했다는 점에서 어린 이승만의 창의성이 드러난다. 그는 훗날에도 이 구절을 기억하며 이러한 종류의 시를 지으려고 노력했다고 회고하였다.

이승만은 약 10세부터 20세까지 양녕대군의 봉사손 이근수가 집안에 세운 도동서당에서 한학을 공부하였다. 남산 서쪽 우수현(霧守峴) 일대에 거주하던 친족들의 인도로 이 서당에 다녔으며, 그의 호인 ‘우남(霧南)’도 이러한 지역적 인연에서 비롯되었다. 이근수는 문과에 급제하여 대사헌, 대사

간 등 고위 관직을 지냈고, 을사조약 이후에는 조약의 무효와 을사오적 처단을 요구하는 상소를 올린 인물이었다.

이승만은 적어도 세 명의 스승에게 한학을 배웠다. 이승설에게서는 경전과 시부를 배웠고, 부친의 친구 신면휴에게서는 유학의 기초를 익혔다. 신면휴는 훗날 이승만을 배재학당으로 이끈 신응우·신금우·신흥우 형제의 부친이기도 하다. 1890년 이후에는 시와 풍류에 능했던 김생원에게서 한시의 묘미와 창작 방법을 배웠다. 여러 스승을 통해 이승만은 유교 지식인에게 요구되는 경전 지식, 문장력, 서예와 시부 창작 능력을 갖추어 갔다.

학습 내용도 광범위하였다. 그는 약 12세에 『통감절요』 15권을 마친 뒤 『맹자』·『논어』·『중용』·『대학』 등 사서를 반복하여 공부하였다. 18세 이전에는 『시전』·『서전』·『주

역』 등 삼경도 학습하였다. 또한 『삼국지』를 시작으로 『수호전』·『서상기』·『전등신화』 등의 중국 고전소설을 읽었다. 그의 한시에는 『당음』과 『고문진보』뿐 아니라 『사기』·『한서』·『장자』·『열자』 등 역사서와 제자백가서의 내용도 폭넓게 인용되어 있다.

당시 전통 서당에서는 봄과 여름에 당·송의 시문을 읽고 시부와 과문을 지었으며, 가을과 겨울에는 경서와 역사서, 고문을 읽고 암송하였다. 이승만도 이러한 방식으로 공부하였다. 특히 16세부터 약 4년 동안 김생원의 지도를 받으며 두보·이백·왕유 등 당나라 시인들의 시를 집중적으로 학습하였다. 꽃이 피거나 녹음이 우거지는 계절에는 스승과 문인들이 함께 시회를 열기도 하였다. 그는 이 시기에 지은 시구들을 광복 이후까지 기억하고 있었다.

이승만은 부친의 기대에 따라 생

원·진사시 합격을 목표로 경서 공부, 서예 수련, 시부 연습을 병행하였다. 경서 자체에는 큰 흥미를 보이지 않았으나 서예와 시 창작에서는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 그러나 부패한 과거 운영과 가문의 불리한 조건 등으로 시험에 거듭 낙방하였다. 그에게 시 공부는 과거 합격을 위한 수단인 동시에 낙방의 고통을 달래는 방법이었다. 과거시험을 위해 익힌 한시 작법은 이후 평생 이어진 창작의 기초가 되었다.

2. 창작 공간에 따른 이승만 한시의 특성

이승만의 한시는 크게 세 공간에서 창작되었다. 첫째는 대한제국기의 한성감옥, 둘째는 국권 상실 이후 중국·미국·유럽을 오간 망명 공간, 셋째는 광복 이후 귀국하여 대통령으로 활동한 조국이다. 이 세 공간은 그의 정치적 생애의 변화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1) 징역의 공간: 한성감옥

이승만은 독립협회운동이 실패한 뒤인 1899년 1월 고종 폐립 음모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1904년 8월까지 약 5년 7개월 동안 한성감옥에서 수감생활을 하였다. 감옥에서 그는 옥중서당을 운영하고, 『영한사전』을 집필하며, 『제국신문』에 논설을 기고하고, 한시를 지었다. 한시는 죄수들이 잠들지 못하던 긴 밤의 지루함과 고통을 견디게 해 주는 중요한 활동이었다.

이승만은 감옥이라는 폐쇄된 공간을 문학 창작을 통해 외부 세계와 연결하였다. 상상력을 통해 감옥 밖의 가족과 자연을 떠올렸으며, 고금의 인물과 사건을 시 속에 불러들였다. 이승만은 정치적 사건에 연루되어 수감된 인물들과 함께 시를 짓기도 하였다. 이 가운데 이유형은 이승만과 시를 주고받을 수 있는 실력을 갖춘 가장

가까운 옥중 시우였다.

아버지에게 보낸 「어버이를 위로 하며」에서는 감옥에 갇힌 아들이 부모에게 술을 올리거나 색동옷을 입고 봉양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표현하였다. 그러나 “봄소식이 머지않았다”는 구절을 통해 석방과 새로운 시대에 대한 희망도 전달하였다. 이처럼 감옥에서 지은 시는 가족에 대한 효심, 군주와 국가에 대한 의리, 억울한 수감생활, 미래에 대한 희망을 함께 담고 있다.

이승만을 감옥 외부로 연결한 한시

數幅箋中筆二枝. 感恩有淚奉書時.

養情違訓供無酒, 獻壽乏誠頌以詩.

繫獄罪輕天有鑑, 報君義重孝難思.

今年縱未斑衣侍, 惟幸陽春在不遲.

(平聲支韻)

이승만은 옥중 한시 원고에 『체역집』이라는 제목을 붙였다. ‘체역’은

육체적인 노역을 정신적인 노역으로 바꾼다는 의미이다. 감옥에서 강제로 육체노동을 해야 했지만 정신과 구국 의지는 빼앗기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다. 그는 시집의 마지막 부분에서 죽음을 각오하더라도 처음 품은 뜻을 지키겠다는 결의를 나타냈다. 따라서 『체역집』은 단순한 옥중 시집이 아니라 감옥의 형벌을 정신적 수양과 창작으로 전환한 저항의 기록이다.

2) 망명의 공간: 중국·미국·유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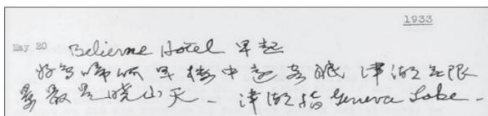
망명기의 한시는 이승만의 활동공간이 한반도에서 태평양과 세계로 확대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는 1920년 하와이에서 임병직과 함께 화물선 웨스트 히카호에 몰래 승선하여 상하이로 향하였다. 중국인으로 가장하고 배의 철제 공간에 숨어 출항을 기다렸으며, 옆에는 중국인 시체가 든 관까지 놓여 있었다.

이때 지은 시에서 그는 자신이 황

천에 있는 것과 같다고 표현하였다. 시체가 든 관 옆에 숨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독립운동을 위해 생명을 걸고 태평양을 건너는 상황 자체가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과 같았기 때문이다. 이 작품에는 ‘West Hika’와 같은 알파벳 표기가 한문 시구와 함께 사용되었다. 이는 과거시험의 형식에서 벗어난 망명객 이승만이 전통 한시 속에 근대적 공간과 외국어를 자유롭게 수용한 사례이다. 1933년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국제연맹에 가입시키기 위해 제네바를 방문하였다. 가입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뒤 글리옹의 벨뷰 호텔에서 새벽에 깨어 한시를 지었다. 이 시에는 국제정치적 긴장이나 외교 실패가 직접 드러나

지 않는다. 대신 아침 일찍 우는 새, 잠든 나그네, 제네바호와 산과 하늘의 아름다움을 노래하였다. 정치적 좌절 속에서도 자연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는 시인의 면모를 보여준다.

1935년 태평양을 건너며 지은 「태평양 배 안에서」에서는 만리 태평양을 여러 차례 오가면서도 마음은 언제나 한양 남산에 머물러 있다고 노래하였다. 미국 유학, 독립운동, 임시정부 활동으로 세계 여러 지역을 돌아다녔지만 그가 가장 그리워한 곳은 어린 시절 살고 공부했던 남산이었다. ‘우남’이라는 호 역시 그를 남산과 연결해 주는 상징이었다. 이 시에는 세계를 떠도는 독립운동가의 고독과 귀향의 소망이 압축되어 있다.



출처: The Diary of Syngman Rhee

1933년 5월 20일 우남이 지은 제네바호수에 관한 한시

3) 귀국과 통치의 공간: 광복된 조국

1945년 귀국한 뒤 이승만의 한시 창작은 다시 활발해졌다. 광복의 기쁨, 건국 과정의 갈등, 대통령으로서의 책임, 한국전쟁의 참상과 희망, 국민과 외국 인사들에게 전하려는 메시지가 한시에 담겼다.

「옛 집을 찾아」에서는 약 50년 만에 남산 도동의 옛 거주지를 찾은 심정을 표현하였다. 옛 친구들은 흩어졌고 마을은 상전벽해처럼 변하였으며, 양녕대군의 사당 앞에서 흰 머리의 귀향객이 눈물을 흘렸다. 이 시는 오랜 망명생활을 마치고 고향에 돌아온 기쁨과 사라진 시간에 대한 비애를 동시에 보여준다.

1947년 미국 여행 중 지은 시에서는 6만 리 길을 44시간 만에 비행기로 왕복한 경험을 노래하였다. 1904년 처음 미국으로 갈 때에는 서울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한 달

이상이 걸렸고, 1920년 상하이로 갈 때에는 화물선에 숨어 밀항해야 했다. 그러나 광복 이후에는 조국의 지도자로서 비행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넜다. 같은 태평양이지만 밀사·망명객·독립운동가·정치 지도자라는 신분 변화에 따라 이동의 방식과 의미가 달라진 것이다.

「가을 달밤」에서는 삼천만 동포와 함께 ‘나라 있는 국민’이 되는 것이 자신의 소원이라고 밝혔다. 국가가 세워지면 시골로 돌아가 한가한 사람으로 살고 싶다는 소망도 표현하였다. 이는 권력 자체보다 독립국가의 건설을 우선적인 목표로 삼았다는 자기 인식을 보여준다.

1951년 부산에서 지은 「전쟁 중의 봄」은 한국전쟁기의 현실을 담고 있다. 산하에는 전쟁의 연기가 가득하고, 피란민들은 집 없는 나그네가 되었으며, 도시에는 무너진

벽만 남고 산촌도 불타 버렸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봄바람이 불고 전쟁터의 폐허에서 새싹이 돋아난다. 이 작품에서 자연의 봄은 파괴 속에서도 삶을 이어가는 국민과 국가 재건의 희망을 상징한다.

3. 흠어진 한시의 수집과 출전

이승만의 한시는 오랫동안 하나의 시집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았다. 한성감옥에서 지은 작품은 친필 시고 『체역집』으로 어느 정도 정리되어 있었지만, 독립협회기·망명기·광복 이후 작품은 친필, 신문, 잡지, 일기, 사진, 서집 등에 흠어져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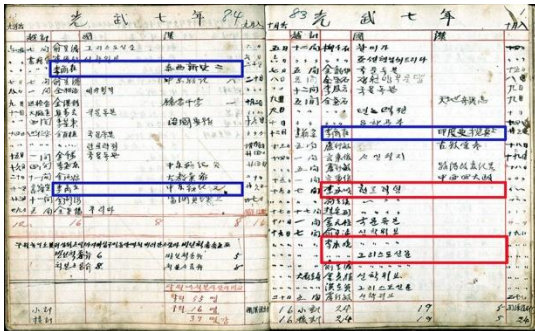
『체역집』에는 1900년 봄부터 1903년 9월까지 약 3년 9개월 동안 지은 154제 196수가 수록되어 있다. 이 원고는 2021년 「우남 이승만 전집」 제5권 『체역집』으로 번역·간행되었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지은 작품 가운데 일부는 원래의 『체역집』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의 친필 시첩으로 전해졌다. 이 시첩에는 이승만의 시뿐 아니라 다른 인물이 지은 원운과 차운시도 포함되어 있어 저자와 작품을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하였다.

2023년에 간행된 「우남 이승만 전집」 제9권 『한시집』에는 『체역집』에 포함되지 않은 작품들이 수집·번역되었다. 여기에는 독립협회기 작품, 『체역집』에서 누락된 옥중시, 상하이 임시정부 시기 작품, 미국과 유럽에서 지은 망명기 작품, 광복 이후 건국과 대통령 재임기에 지은 작품이 포함되었다.

독립협회 시기의 작품은 모친상 부의록과 『대한매일신보』에서 확인되었다. 상하이 임시정부 시기의 작품은 이화장 소장 문서 가운데 『체역집』 뒤에 수록된 시고에서 발견되었다. 미국 독립운동기의 작품으로는 백관수에게 써 준

시, 제네바 호텔에서 지은 시, 안
창호의 죽음을 애도한 만시 등이



광무 7년 한성감옥에서 기록한 도
서 대출 장부이다. 이승만과 이상재
등의 이름이 보인다.

1959년에는 대통령 공보실이 이은
상에게 번역을 맡겨 『우남시선』을
간행하였다. 이 책에는 31수가 실
렸으며, 1935년 태평양에서 지은
시 한 편을 제외하면 대부분 광복
이후의 작품이었다. 공보실은 이
승만의 많은 한시 가운데 아직 널
리 알려지지 않은 작품을 선정하
여 국민에게 소개한다는 취지로
이 책을 출판하였다.

1990년 간행된 『우남이승만박사서
집』에도 이승만의 친필 한시와 휘
호가 수록되었다. 여기에는 자신

이 지은 시뿐 아니라 정몽주, 이
상재, 하지장 등 선인들의 시를
쓴 친필도 포함되어 있다. 이 밖
에도 프란체스카 여사가 밴 플리
트 장군에게 한시를 설명하는 사
진과 이화장 전시자료 등을 통해
작품의 원문이 확인되었다. 이처
럼 이승만 한시의 집성은 친필의
진위, 신문과 잡지의 게재 기록,
사진과 문서의 작성 시기 등을 중
합적으로 검토하는 문헌학적 작업
이었다.

4. 정치·외교적 목적으로 활용된 한시

전통사회에서 한시는 개인의 감정을 표현하는 문학이면서 동시에 외교적 의사소통의 수단이었다. 공자는 『시경』의 시를 많이 외우더라도 정치와 외교 현장에서 적절히 활용하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다고 하였다. 조선시대 과거시험에서 시를 제외하자는 의견이 제기될 때마다 외국 사신을 접대하고 시로 응답해야 한다는 이유로 시 과목이 유지되었다.

이승만은 과거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한시를 배웠지만, 대통령이 된 뒤에는 한시를 정치적·외교적으로 활용하였다. 특히 한국전쟁과 전후 복구 과정에서 한국을 방문하거나 근무한 미군 장성들에게 직접 지은 한시를 붓글씨로 써서 선물하였다. 벤 플리트 장군에게 준 시에서는 그가 유럽과 아시아에서 공산군과 싸워 공을 세웠다고 칭

송하였다. 미국 장성들은 한시로 화답할 수 없었지만, 프란체스카 여사가 작품의 뜻을 영어로 설명해 주었으며, 장성들이 귀국 이후에도 이 시들을 보관한 사실은 한시가 개인적 우의와 외교적 예우의 수단으로 기능했음을 보여준다.

1947년에는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중국을 방문하여 장제스 총통과 항저우 서호에서 뱃놀이를 하며 시를 지었다. 시 자체에는 직접적인 외교적 문구가 거의 없지만, 한국과 중국의 지도자가 전통적인 한시 문화를 공유하고 함께 시를 지었다는 사실 자체가 상징적인 외교 행위였다.

1949년 장제스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승만은 「불국사」를 보여주었다. 이 시는 신라의 유적과 옛 왕조의 흔적, 전쟁이 끝난 뒤 평화를 누리는 모습을 노래하였다. 중국 문인 평귀등은 이승만의 시를 중국 역대 군주들의 작품과 비교

하면서, 다른 문인의 윤색을 거친 것이 아니라 이승만이 직접 지었다는 점과 한국인으로서 깊은 한시 소양을 갖췄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1957년 평귀동이 집필한 『중한시사』는 신라와 당, 고려와 송·금·원, 조선과 명·청 사이의 시문 교류를 정리한 뒤 현대의 이승만과 장제스의 교류까지 연결하였다. 이 책은 1960년 신호열의 번역으로 공보실에서 『한중시사』라는 제목으로 간행되었다. 이승만과 장제스의 관계는 전통적인 한시 교류를 현대의 반공 외교와 연결한 사례였다. 글에서는 이를 “문장으로 나라를 빛낸다”는 뜻의 ‘문장화국’으로 설명한다.

5. 이승만 한시의 역사적 의미

이승만은 어린 시절 과거시험을 준비하면서 한시를 익혔지만 갑오개혁으로 과거제도가 폐지되자 배

재학당에 입학하여 한글과 영어를 배웠다. 이후 그의 기록 언어는 한문·국문·영문으로 확대되었다. 전통 한문 지식과 근대 영어 교육을 함께 습득한 경험은 그가 조선 후기의 지식인에서 근대적 정치가와 외교가로 전환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한시 창작은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의 일상생활의 일부로 남았다. 대통령 재임기에도 비서관들에게 창경궁 장서각에서 당나라 시집과 한문 서적을 빌려오게 하였다. 감옥에서 읽은 책을 기록한 「소람서록」에는 운서가 없었는데, 이는 20대 무렵 이미 운서를 참고하지 않고도 평측과 압운을 맞춰 시를 지을 정도의 능력을 갖추었다는 근거로 제시된다.

이승만 한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문학성과 정치성이 결합되어 있다는 점이다. 옥중시에는 부모와 군주에 대한 충성과 수감자의

고통이, 망명기 시에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독립운동가의 고독이, 대통령 재임기의 시에는 건국, 전쟁, 국민, 외교와 국가 지도자로서의 책임이 담겨 있다. 특히 나라를 잃고 미국과 중국을 오가며 독립을 추진한 경험과, 광복 이후 공산군의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지키려 한 의지가 작품 곳곳에 나타난다.

윤치영은 1961년 『체역집』 번역본의 발문에서 이승만의 시를 문학적 각도에서 찬양하기보다 작품 속에 나타난 애국열정과 독립정신을 음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평가는 젊은 시절 3년여의 옥중시만 수록한 『체역집』보다 이승만의 생애 전체를 망라한 『한시집』에 더 적합하다. 『체역집』에서는 부모와 군주에 대한 전통적 충성이 강하게 나타나지만, 망명과 건국 이후 작품에서는 애국·애족과 독립정신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승만은 호찌민, 마오쩌둥과 비슷한 시대를 살면서 한자문화권의 전통에 따라 자신의 정치적 생각과 경험을 한시로 표현하였다. 세 사람 모두 조국의 독립과 정치변혁에 참여한 지도자였지만, 현재 확인된 작품 수에서는 이승만의 한시가 271수로 비교적 많은 편이다. 이는 그가 한시 짓기를 특별한 행사에 한정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실천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호찌민과 마오쩌둥의 시가 사후 널리 읽히고 여러 언어로 번역된 것과 달리, 이승만의 한시는 오랫동안 흩어진 상태로 남아 있었다. 2021년 『체역집』과 2023년 『한시집』의 간행에 이르러서야 271수가 본격적으로 집대성되었다. 따라서 이승만 한시에 대한 연구는 문학적 평가뿐 아니라 한국 근현대 정치사, 독립운동사, 한문학사, 외교사와 기록학을 연결하는 작업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



1952년 4월 14일 이승만 건국 대통령께서 벤 플리트 장군에게 친필로 쓴 병풍을 선물하고 있다. 프랜시스카 여사가 벤 플리트 장군에게 설명하고 있다.

6. 이승만 기록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필요성

이승만의 친필 한시는 1896년 22세 때부터 1960년 86세 때까지 남아 있다. 그의 전체 기록은 한문·국문·영문으로 작성되었으며, 배재학당, 협성회, 독립협회, 한성감옥, 미국 유학, 상하이 임시정부, 구미 위원부, 주미외교위원부, 광복과 건국, 대통령 재임기에 걸쳐 있다. 관련 자료는 『이화장 소장 우남 이승만 문서』와 『우남 이승만 전집』으로 일부 간행되었으며, 대통

령 재임기 문서는 방대한 분량이 마이크로필름으로 정리되어 있다.

이승만은 비서실의 작은 메모지까지 버리지 않고 기록에 활용할 정도로 기록을 중시하였다. 그는 투옥과 망명, 전쟁과 피란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약 65년 동안 생산한 방대한 기록을 보존하였다. 한 개인이 남긴 기록이라는 점에서도 가치가 크지만, 국권 상실과 독립운동, 국제외교, 대한민국 건국, 한국전쟁과 국가 운영의 전 과정을 여러 나라에서 직접 경험

하고 작성한 자료라는 점에서 세계적으로도 드문 기록유산이다.

조선통신사 필담창수집, 조선시대 대일외교 용어사전, 수신사와 조 사시찰단 자료, 내한 선교사 편지 등의 수집·번역·데이터베이스 구축 경험이 있다. 특히 조선통신사 기록을 정리하여 2017년 세계기록유산 등재로 연결한 사례를 바탕으로, 이승만의 기록도 체계적으로 수집·정리·번역·디지털화해야 한다.

디지털 아카이브는 친필 한시, 국문 문서, 영문 서신, 일기, 사진, 대통령 문서와 관련 자료를 하나의 체계 안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야 한다. 작품의 원문과 번역문, 작성 시기, 장소, 관련 인물, 역사적 사건, 자료 소장처와 출전을 함께 제공한다면 일반 국민과 국내외 연구자들이 이승만의 생애와 한국 근현대사를 보다 정확하게 연구할 수 있다. 나아가 이 기록을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

록유산으로 발전시키는 사업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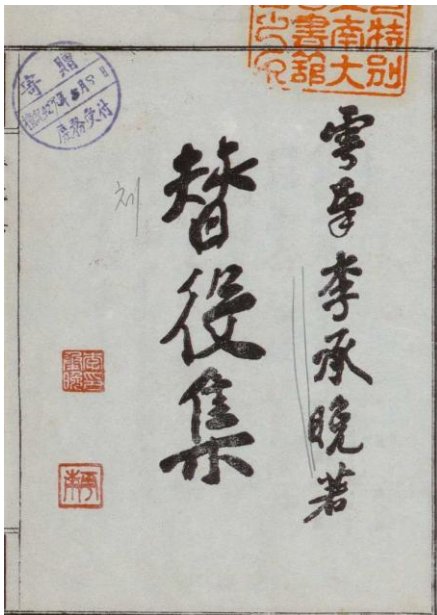
맺음말

이승만의 한시는 전통 한학을 공부한 조선 말기 청년이 근대적 독립운동가와 외교가,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변화해 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어린 시절에는 과거 합격을 위해 한시를 배웠고, 감옥에서는 육체적 형벌을 정신적 창작으로 전환하기 위해 시를 지었다. 망명기에는 태평양과 미국·중국·유럽을 떠돌면서 고향과 조국을 그리워하였고, 광복 이후에는 건국과 전쟁,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시에 담았다. 대통령이 된 뒤에는 한시를 외국 정상과 미군 장성에게 전달하며 정치·외교적 소통의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따라서 이승만의 한시는 문학작품인 동시에 개인의 자전적 기록이며, 독립운동과 건국, 한국전쟁과 국제외교를 증언하는 역사자료이

다. 그의 271수 한시에는 전통적인 충효 의식, 독립을 향한 열망, 망명객의 고독, 고향에 대한 그리움, 반공과 국가수호 의지, 전쟁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려는 태도가 함께 담겨 있다. 이러한 작품과 관련 기록을 종합적으로 수집

하고 디지털 아카이브로 구축하는 것은 이승만 개인의 문학적 면모를 밝히는 작업을 넘어, 한국이 국권을 상실했다가 독립국가를 건설한 과정을 세계적인 기록유산으로 보존하는 사업이라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체역집은 60년만인 1961년 동서출판사에서 신호열 번역본으로 발간됐다. 필사본 체역집은 유역인 교수의 해제와 함께 영인본으로 출판됐다. 우남 이승만은 1899년 3월부터 1904년 8월까지 한성감옥에 갇혀 있었다. 필사본 체역집 표지에 경자년 봄에 베끼다(경자춘등, 庚子春騰)라고 쓰여 있다. 경자년은 1900년으로 우남 이승만이 한성감옥에서 그 동안 써 온 한시를 정서해서 필사본으로 만든 것 같다.

연세대학교 이승만연구원은 이승만 전집 5권으로 허경진 교수의 해제와 함께 체역집을 발간했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과 자유민주주의와의 만남

양준모

이승만 건국 대통령(우남)과 자유민주주의의 만남은 운명이었다. 우남이 여러 경험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신념을 굳혔지만, 우남이 가지고 있었던 선협적 인식의 틀이 우남을 자유민주주의자로 만들었다. 우남은 조선의 사대부적 사고와 시대를 앞선 현대적 사고를 동시에 지녔다. 우남이 이강석을 양자로 입적할 때인 1957년에 지은 유감(有感)¹이란 시를 보면 대를 잇는다는 사고가 남아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우남은 한 시를 자유롭게 지을 수 있는 사대부이고, 영어로 쓴 책이 미국에서 베스트 셀러가 된 경험을 가진 서양 문필가이며, 서양인과 결혼하

여 해로(偕老)한 국제인이었다. 우남이 가지고 있는 사고의 포용력과 이해력은 시대를 뛰어넘었다. 우남이 선천적으로 가진 사고의 포용력과 이해력이 자유민주주의와의 만남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에서 6대 독자로 태어나 과거를 준비했던 우남은 1894년 과거 제도가 폐지돼 새로운 길을 찾아야 했다. 자유민주주의와의 만남은 1895년 4월 배재학당에 입학하면서 시작됐다. 배재학당에서 우남을 가르친 첫 번째 선생님은 노블 박사(Dr. W.A. Noble)였다. 1912년 우남이 미니애폴리스에서 열린 국제 감리교 총회에서 노블 박사

¹ 우남이승만전집발간위원회 연세대학교 이승만연구원 편, 한시집 -체역집에 실리지 않은 시, 우남 이승만 전집 9, 연세대학교 출판문화

원, 2023: p.148.

의 독특한 교수 방법과 교육자로서의 모범을 보인 일을 회상한 적이 있다². 우남의 포용력은 노블 박사의 포용적 교육에서 시작됐다.

배재학당 교장인 아펜젤러(Henry Appenzeller)는 감리교에서 발간하는 *The Korean Repository*의 편집을 도왔다. 헐버트(Homer Hulbert)가 편집장이었던 동 잡지는 조선과 세계를 연결하는 타임머신과 같은 존재였다. 아펜젤러는 학생들에게 잡지를 만드는 것을 독려했다. 우남은 협성회회보를 발전시킨 매일신문이라는 일간지의 편집장으로 일했다. 우남은 이런 경험을 통해 폭넓은 지식을 이해하고 비판적 능력을 갖춘 언론인, 그리고 개혁을 추진하는 혁명가로 성장한다.

배재학당의 선생님이로 달질 벙커(D.A. Bunker), 프랭클린 올링거

(Dr. F. Ohlinger), 그리고 헐버트(Homer B. Hulbert)가 우남을 가르쳤고, 우남은 이들과의 토론에서 자유민주적 사고를 강화했다. 우남은 친하게 지내던 선교사 애비슨 박사(Dr. O. R. Avison)와 오랜 시간의 토론 끝에 자신의 상투를 애비슨 박사가 자르도록 요청한다. 상투를 자른 것은 우남이 조선의 억압과의 결별을 선언한 사건이면서 새로운 세계로의 진입을 시작한 사건이다. 우남은 동양을 품고 서양을 받아들였다. 그 원칙은 자유주의였다.

자유주의는 정부의 권한을 제한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려는 사고이다. 미국은 자유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재산권을 보장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보장한다.

조선에 자유주의적 사고가 들어

² Oliver, Robert T., Syngman Rhee, *The Man Behind the Myth*, Dodd Mead and Company, New York, 1960. p.19

온 시기는 우남이 배재학당에 입학하기도 전이다. 자유는 인간의 천부적 권리이며 절대적으로 누리고자 하는 속성이다. 불행하게도 조선 이전에도, 그리고 조선에서도 자유라는 개념은 용납되지 않았다.

조선에서 자유주의적 사고를 처음 접한 사람들은 개화파로 알려져 있다. 특히, 1888년 박영효의 상소문은 미국식 자유주의가 그대로 언급됐다. 박영효 상소문의 일부 구절은 다음과 같다.

“하늘이 인간을 창조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준 것은 움직일 수 없는 권리이다. 그 권리란 생명을 보호하고 자유를 추구하며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³.”

서구의 자유주의가 조선에 들어와 조선을 개혁하고자 사람들에게 전파됐다. 이들은 개화파라는 이름

으로 모였다. 개화파들이 발행한 한성순보에는 이러한 자유주의적 사고가 기사화됐다.

1895년 우남이 배재학당 1학년을 끝낼 무렵, 서재필 박사가 배재학당에 왔다. 서재필은 1882년 별시문과 병과에 합격해 앞날이 밝은 청년이었다. 서재필은 김옥균과 박영효 등과 교류하며 개화사상을 갖게 됐다. 임오군란 이후 김옥균의 권고로 서재필은 1883년 일본의 도야마육군학교(戸山陸軍學校)에 1년 유학을 하고 1884년 12월 갑신정변에 참여했다. 갑신정변의 실패로 박영효와 함께 미국으로 건너갔다. 서재필은 미국에서 의사가 돼, 워싱턴에서 개업까지 했다. 갑오경장으로 개화당이 사면되자, 서재필은 1895년 5월 외무협판으로 임명되었으나 귀국하지 않았다. 조선에 남았던 서재필의

³ 김주성, 김옥균 박영효의 자유주의 정신, 정치사상연구, 2. pp. 37-60.

가문은 처참하게 처형됐으니, 서재필이 주저한 것은 당연했다. 서재필은 박영효의 권유로 12월에서야 조선에 왔고, 1896년 1월 중추원 고문을 맡았다⁴. 서재필은 조선을 떠나 미국인이 돼 미국에서 성공한 조선인으로 미국의 꿈을 상징한다.

서재필은 배재학당에서 서구의 역사를 가르치고, 학생들이 협성회를 결성하여 토론하도록 한다. 우남과 배재학당의 학생들은 서재필로부터 서구식 민주주의와 의회, 그리고 서구의 사상들을 배우게 된다. 서재필은 1896년 독립신문을 창간하고 독립협회를 결성하였으며, 배재학당의 학생들과 함께 자주와 자립의 분위기를 만들었다.

서구의 역사를 배우면서, 로크(John Locke)와 제퍼슨(Thomas Jefferson), 그리고 에머슨(Ralph

Waldo Emerson)과 칼라일(Thomas Carlyle)을 접했을 것이다. 우남은 자유주의 사상을 접하고, 독립 혁명을 꿈꿀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우남이 자유주의를 만나 이를 민주적 행동으로 실천하게 된 계기는 독립협회에서의 활동이다. 우남은 독립협회의 회원으로 1898년 3월 러시아의 부산 절영도 조차 요구에 반대하기 위해 모인 제1차 만민공동회에서 연설가로 두각을 나타냈고, 총대위원으로 선출되어 만민공동회의 결의서를 외부대신 민종묵에 전달하는 임무를 맡았다. 그해 8월 윤치호와 이상재가 독립협회의 회장 및 부회장직을 맡으면서 독립협회는 참정권 운동의 성격을 띠게 된다. 윤치호와 독립협회 간부진이 박정양과 민영환 내각의 도움을 받아 10월 29일 관

⁴ 최영기, 서재필이 꿈꾼 나라 -서재필 국문자료집, 현대한국학연구소 자료총서 12, 푸른역

사, p.22.

민공동회를 개최하고 수구파 대신 7인 퇴치 운동을 하게 된다. 여기에 반발한 수구파 관료들이 11월 4일 고종에게 독립협회가 공화정을 실시하려고 한다고 무고한다. 이에 따라 고종은 이상재를 비롯한 간부 17명을 체포했다. 우남은 농성을 주도하여 고종이 이들을 석방하게 만든다. 우남은 후일 자서전 개요에서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표현한다. 과거를 준비했던 우

남이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는 사회 개혁운동가로 변신했다. 모든 사람이 우남을 기억했다. 자유민주주의와 우남의 만남은 단숨에 우남을 민족의 지도자로 끌어 올렸다. 자유주의를 만나 민주주의를 경험한 우남은 자유민주주의 실천가로서 독립운동에 헌신하게 된다.

출처: 자유일보

<저자소개>



양준모 교수는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를 1986년에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에서 1988년에 석사학위를 취득한 이후 미국 UCLA에서 1994년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양준모 교수는 연세대학교 글로벌창의융합대학 경제학과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2023년 9월 1일부터 연세대학교 이승만연구원 원장으로 일하면서 이승만 건국 대통령에 관한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미국 독립 250주년이 한국에 주는 교훈: 자유분권 관점에서 본 미국 건국정신

현진권(자유분권포럼 대표)

1. 미국 독립 250주년의 의미

미국은 올해 독립 250주년을 맞았다. 1776년 7월 4일 독립을 선언한 미국은 250년 만에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미국의 성공을 막대한 국토와 풍부한 자원, 군사력과 달러의 힘에서 찾는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은 결과일 뿐이다. 진정한 질문은 무엇이 오늘의 미국을 만들었는가이다.

미국 독립 250주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도 여기에 있다. 미국의 역사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변형하게 만든 건국의 원리를 살펴보는 것이다. 그 원리는

강한 중앙정부를 만드는 데 있지 않았다. 권력을 분산하고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를 만드는 데 있었다.

오늘날 한국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현실은 미국 건국의 원리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미국은 왜 권력을 중앙에 집중시키지 않았는가. 그 선택은 어떻게 미국의 자유와 번영으로 이어졌는가. 그리고 한국은 그 경험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미국 독립 250주년은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2. 미국 건국정신은 권력 분산이었다

미국 독립의 가장 큰 특징은 단순히 영국으로부터 독립했다는 사실이 아니다. 독립 이후 어떤 국가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었다. 미국 건국의 지도자들은 강한 중앙정부를 만드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 오히려 권력이 한곳에 집중되지 않는 국가를 만드는 데 정치적 지혜를 모았다.

그들이 이러한 선택을 한 이유는 분명했다. 독립전쟁은 영국 국왕의 권력 남용에 대한 저항에서 시작되었다. 따라서 영국 왕의 권력을 몰아낸 뒤 또 다른 강력한 중앙권력을 만드는 것은 독립의 정신과 모순되는 일이었다. 문제는 영국이라는 나라가 아니라 권력의 집중 자체였기 때문이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인간이 선의만으로 권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

었다.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라도 권력이 집중되면 남용될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역사 인식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권력을 믿기보다 권력을 견제하는 제도를 믿었다. 좋은 사람을 기다리는 정치보다 권력이 서로 견제하는 정치가 더 안전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철학은 미국 헌법에 그대로 담겼다.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권한을 나누고, 입법부·행정부·사법부가 서로를 견제하도록 설계하였다. 어느 한 기관도 절대적인 권력을 갖지 못하도록 권력을 여러 곳에 분산시켰다. 미국 헌법의 핵심은 강한 정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강해지지 못하도록 만드는 데 있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관계이다. 미국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만든 나라가 아니다. 이미 존재하던 열세 개의 주가 자신들의 자유를 지키기 위

해 필요한 권한만 연방정부에 위임하였다. 다시 말해 국가가 지역을 만든 것이 아니라 지역이 국가를 만든 것이다. 오늘날에도 교육, 치안, 지방행정, 조세 등 많은 분야에서 주정부는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하며 서로 다른 정책을 펼친다.

이러한 권력분산은 단순한 행정기술이 아니라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정치 철학이었다. 자유는 권력자의 선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집중되지 않는 제도에서 나온다는 믿음이었다. 그래서 미국 건국의 핵심 가치는 민주주의 이전에 자유였고, 자유를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권력 분산이었다.

미국은 건국 초기부터 '어떻게 강한 정부를 만들 것인가'보다 '어떻게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지 못하게 할 것인가'를 고민한 나라였다. 바로 이 건국정신이 이후 미

국의 정치와 경제, 그리고 사회 전반의 발전 방향을 결정하는 출발점이 되었다. 자유로운 사회와 경쟁적인 경제 역시 이 권력분산의 토대 위에서 가능해졌다. 이것이 미국 독립 250년이 지난 오늘에도 건국정신이 여전히 중요한 이유이다.

3. 권력분산이 자유를 만들고 미국을 번영시켰다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 된 이유를 단순히 풍부한 자원이나 거대한 내수시장에서 찾는 것은 충분한 설명이 아니다. 오늘날 미국의 압도적인 경쟁력은 건국 당시 선택한 권력분산의 원리가 경제와 사회 전반으로 확장된 결과이다. 정치에서 권력이 분산되자 사람들의 자유가 확대되었고, 자유는 치열한 경쟁을 낳았으며, 경쟁은 혁신과 번영으로 이어졌다.

권력분산은 정치제도에만 머물지

않았다.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서로 다른 정책을 시행하며 경쟁했고, 각 주는 기업과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와 세제, 교육과 연구 환경을 개선해 왔다. 어느 한 지역의 성공은 다른 지역의 변화를 자극했고, 이러한 경쟁은 미국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원동력이 되었다.

민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정부가 산업의 방향을 결정하기보다 기업과 개인이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보다 새로운 도전을 장려하는 문화 속에서 수많은 기업이 탄생했고, 시장의 경쟁을 통해 성장했다. 오늘날 세계를 선도하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구글과 같은 기업들은 정부가 계획하여 만든 기업이 아니라 자유로운 시장 경쟁 속에서 성장한 기업들이다.

미국의 대학 역시 경쟁의 산물이

다. 연방정부가 대학을 획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각 대학이 독립적으로 경쟁하면서 세계 최고의 연구와 교육 역량을 키워왔다. 기업과 대학, 투자자가 자유롭게 협력하는 생태계는 끊임없는 기술혁신을 가능하게 했고, 이는 다시 미국 경제의 성장으로 이어졌다.

결국 미국의 경쟁력은 정부가 시장을 이끌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개인과 지역, 기업이 경쟁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정치에서 권력을 분산시킨 것이 경제에서는 자유를 낳았고, 자유는 혁신을 만들어 세계 최고의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진 것이다.

오늘날 미국의 힘은 군사력이나 달러의 위상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힘은 자유롭게 도전하고 경쟁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든 제도에 있다. 미국

건국의 권력분산은 단순한 헌법 원리가 아니라, 250년 동안 미국의 혁신과 번영을 만들어 낸 성장의 원천이었다.

4. 한국은 왜 거꾸로 갔는가

미국이 권력을 분산하여 자유와 경쟁을 선택했다면, 한국은 반대로 권력을 중앙에 집중하는 길을 걸어왔다. 경제성장 초기에는 이러한 중앙집권 체제가 빠른 산업화에 일정한 역할을 했을 지 모른다. 그러나 시대가 바뀔 지금도 같은 방식이 유지되면서 오히려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한국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매우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중요한 정책은 중앙정부가 결정하고, 재정은 중앙정부가 배분하며, 지역은 그 틀 안에서 움직인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지방정부는 여전히 중앙정부

의 예산과 지침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그 결과 지역은 경쟁의 주체가 아니라 지원의 대상이 되었다. 지역이 스스로 성장전략을 선택하고 책임지는 구조보다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가 더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지역의 창의성과 도전은 약해지고, 중앙에 의존하는 문화는 더욱 강화되었다.

오늘날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도 이러한 구조와 무관하지 않다. 사람은 보조금을 따라가지 않는다. 사람은 기회를 따라간다. 기업 역시 지원금보다 자유로운 투자환경과 우수한 인재를 선택한다. 그러나 중앙집권 체제에서는 지역이 스스로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이 부족하다. 결국 사람과 기업은 더 많은 기회가 있는 수도권으로 이동하게 되고, 지방은 더욱 활력을 잃게 된다.

최근에는 정부가 민간기업의 공장 입지까지 정책적으로 유도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입지는 정부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기업이 시장의 판단에 따라 선택할 문제이다. 지역경제를 살리는 길은 기업을 행정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스스로 찾아오고 싶어 하는 자유로운 경쟁환경을 만드는 데 있다.

결국 한국의 문제는 지방에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유가 부족한 데 있다. 지역에 자유가 없으면 책임도 생기지 않고, 책임이 없으면 경쟁도 일어나지 않는다. 지금의 한국은 지역을 가진 정부일 뿐만 아니라, 지역을 지배하는 정부 체계이다. 이러한 중앙집권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지방소멸을 막겠다는 것은 원인을 그대로 둔 채 결과만 바꾸려는 접근에 불과하다. 지방을 살리는 출발점은 더 많은

보조금이 아니다. 지역이 스스로 선택하고, 경쟁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미국의 건국정신이 오늘의 한국에 던지는 가장 중요한 시사점이다.

5. 자유분권이 한국의 새로운 국가 운영원리가 되어야 한다

미국 독립 250주년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분명하다. 국가의 경쟁력은 권력의 집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유와 경쟁을 보장하는 제도에서 나온다는 사실이다. 미국은 250년 전 권력을 나누는 국가를 선택했고, 그 선택은 자유를 낳았으며, 자유는 혁신과 번영으로 이어졌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중앙정부가 지역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국가 운영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은 그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지방을 지원하는 정책이 아니라, 지역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일이다.

이제 지방분권도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지금까지의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의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나누어 주는 행정개혁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지역의 활력을 되살릴 수 없다. 지역이 스스로 정책을 결정하고,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며, 그 결과에 주민에게 책임지는 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자유 없는 분권은 중앙권력의 하부구조에 불과하며, 책임 없는 분권은 재정만 낭비하는 제도가 될 수밖에 없다.

지역이 자유를 가지면 지역마다 서로 다른 정책이 나타날 것이다. 어떤 지역은 기업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고, 어떤 지역은 교육과 문화에 집중할 수도 있다. 이러한 다

양성은 지역 간 경쟁을 만들고, 성공한 정책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된다. 국가 전체의 혁신은 중앙정부의 일률적인 계획보다 이러한 경쟁 속에서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

지방소멸 역시 같은 원리로 접근해야 한다. 사람은 보조금을 따라가지 않는다. 사람은 기회를 따라간다. 지역이 살아나려면 더 많은 예산보다 더 많은 자유가 필요하다.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청년이 미래를 설계하며, 지역이 스스로 성장 전략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의 출발점이다.

미국 독립 250주년은 단지 한 나라의 역사를 기념하는 행사가 아니다. 그것은 국가의 변명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역사적 메시지이다. 이제 한국도 중앙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국가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역을

지배하는 국가가 아니라, 자유로 는 나라로 나아가야 한다.
운 지역이 국가를 함께 만들어 가

<저자 소개>



현진권 박사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대학원에서 지역계획학 석사 학위, 카네기 멜런 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책분석학 박사 학위를 각각 취득했으며,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자유경제원 원장, 국회도서관장, 강원발전연구원장을 역임하였다.

침묵의 대가 — 아렌트의 거울 앞에 선 대한민국

김상철(한세대학교 교수, 전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한나 아렌트가 예루살렘 법정에서 마주한 아이히만은 뿔 달린 악마가 아니었다. 수백만 명의 이송을 관리한 그는 광신적 이데올로그가 아니라 자기 승진에만 몰두한 성실한 관료였고, 양심의 가책 없이 일했다. 아렌트는 그에게서 특별한 악의 대신 '무사유(無思惟)', 곧 타인의 처지에서 생각하는 능력의 전면적 부재를 보았고, 이를 '악의 평범성'이라 명명했다. 무사유는 어리석음이 아니다. 유능하고 성실했던 그는 다만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스스로 판단하기를 포기했을 뿐이다. 거대한 악은 괴물의 손이 아니라, 생각하기를 멈춘 채 자신의 이익만을 계산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손으로 집행된다는 것이다. 그녀는 더 나아가 유대인 평의회의 일부 지도자들이 나치 행

정에 협력해 이송자 명단과 재산 목록을 넘긴 사실을 기록하며, 이를 홀로코스트 전체에서 가장 어두운 장으로 꼽았다. 가해자의 악보다 더 깊은 어둠은 피해자 공동체 내부의 타협이었다는 것이다. 그들 역시 악인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력한 인사들이었다. 협력하면 더 많은 이를 구한다는 계산, 자신만은 예외가 되리라는 계산이 사유의 자리를 대신했을 뿐이다.

이 거울에 우리 역사를 비추면 낮익은 얼굴들이 떠오른다. 일제 하에서 총독부에 협력한 것은 작위와 은사금을 받은 기득권층만이 아니었다. 독립운동 진영 안에서도 변절과 밀고가 이어졌고, 고등계 형사의 정보원이 되어 어제의 동지를 팔아넘긴 자들이 있었다.

그들에게 변절과 협력은 돌이킬 수 없는 대세 앞에서 생존을 위한 당연한 방편이었다. 그러나 그 '당연함'이야말로 사유의 정지였고, 그 작은 계산들이 모여 만든 것은 민족 전체의 예측이었다.

같은 시대에 생각하기를 멈추지 않은 사람이 있다. 이승만이다. 그는 1899 년 한성감옥에 투옥되어 5 년 7 개월을 복역했다. 그 감옥에서 그는 학교를 열어 죄수들을 가르쳤고, 영한사전 편찬에 착수했으며, 옥중에서 『독립정신』을 집필했다. 국민 개개인의 각성만이 나라를 지킨다고 갈파한 책이다. 출옥 후 미국으로 건너가 조지워싱턴대와 하버드를 거쳐 프린스턴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나, 그가 얻은 것은 영달이 아니라 무국적자의 처지였다. 나라 잃은 자에게 여권은 없었다. 1912 년 조국을 떠난 뒤 33 년간 고국 땅을 밟지 못한 채, 하와이에서는 학교를

세워 동포 2 세를 가르치고 워싱턴에서는 구미위원부를 이끌며 국제 무대에서 대한 독립을 호소했다. 그는 1919 년 통합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으로 추대되었으며, 1941 년 『일본의 가면을 벗긴다(Japan Inside Out)』로 일본의 미국 공격을 경고해 진주만 기습 이후 미국 조야를 놀라게 했다. 주목할 것은 그의 시야가 일본 제국주의 너머에 있었다는 점이다. 그는 레닌의 볼셰비키 혁명(1917)이 일어난 지 불과 6 년 뒤인 1923 년, 「공산당의 당부당(當不當)」이라는 논설에서 자본가와 지식계급과 종교를 없애자는 공산주의 강령이 어떤 예측으로 귀결될지를 예리하게 짚었다. 해방 공간에서 많은 이가 좌우합작의 환상에 취해 있을 때 자유민주주의 정부 수립으로 나아간 것은 이 오랜 사유의 귀결이었고, 그 위에서 농지개혁으로 공산혁명의 토양을

제거했으며, 초등 의무교육으로 국민 각성의 토대를 놓았고, 1953년 반공포로 석방이라는 승부수로 미국을 움직여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얻어냈다. 그의 생애는 전제군주정에 맞선 청년기, 일본 제국주의에 맞선 장년기, 공산 전체주의에 맞선 노년기로 구분할 수 있지만, 그가 지키려 한 것은 단 하나, 인간의 자유였다. 모두가 대세를 말할 때 홀로 원칙을 사유하고 견지한 자유 투사의 삶이었다.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비겁과 부패는 어느 한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전방위적이다. 행정부는 좌경화된 입법부의 시녀가 되었고, 지식인과 종교인도 침묵으로 일관한다. 무엇보다 단언컨대, 현재 대한민국은 심각하게 좌경화되어 곳곳에서 악의 평범성이 창궐하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체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핵심은

사법부의 좌경화와 언론의 비판 기능 상실이다.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재판의 결론을 담당 법관의 정치적 성향으로 예측할 수 있게 된 현실, 그것이 오늘의 사법부다. 판결의 정치화가 의심받는 순간, 공동체를 지탱하던 규범적 통합은 안에서부터 허물어진다. 행정과 입법의 폭주를 견제할 마지막 제도가 기능을 멈추고 재판이 여론과 정치에 좌우될 때, 시민에게 남는 유일한 공간은 또 다른 광장뿐이다.

언론의 문제는 더 심각하다. 오늘의 좌경화된 대한민국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면 언론의 몫이 가장 무겁다.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를 포기한 언론은 좌파 정권의 폭주를 사실상 방조한 공범이기 때문이다. 이른바 레거시 미디어는 권력 비판이라는 존재 이유를 잃었을 뿐 아니라 스스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되었다. 무엇이 뉴스가 되고 누가 발언권을 얻을지를 홀로 결정하는 공론장의 문지기는 이미 권력이며,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다. 그들의 작태의 본질은 태만이 아니라 오만이다. 보수 진영을 제 의도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믿고, 말 잘 듣는 대표를 세워 제 1 야당을 조종하려 드는 것이다. 프레임에 순응하는 정치인에게는 '합리적 보수'라는 훈장을 달아 지면과 화면을 내주고, 맞서 싸우는 정치인과 거리의 자유 시민에게는 '극우'의 낙인을 찍어 고립시킨다. 여론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하고, 야당의 진로와 대표 선출에까지 사실상의 심판자로 군림하려 든다.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분노해 올림픽공원에 모인 청년들과 시민들이 요구한 것은 민주주의의 기초인 선거 공정성의 검증이었다. 그러나 언론은 이들에게 '극우 음모론'의

낙인부터 찍어 그 목소리를 외면했다. 검증의 대상인 선관위의 해명을 받아쓰는 앵무새로 전락했고, 외부 세력이 우리 선거에 개입했을 가능성도, 중국의 영향력에 잠식되어 가는 대한민국의 존립 위기도 물어볼 가치조차 없는 질문으로 취급한다. 물음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묻는 자를 단죄하는 언론은 이미 언론이 아니라 선동 기구다. 그리고 이것은 언론만의 초상이 아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무지하고, 진실에 눈감고, 거짓과 선동에 부역하여 제 몫을 지키는 것은 이 나라 지식인 사회와 기득권 세력 전반의 자화상이다.

그리고 공천만을 계산하는 국민의 힘의 적지 않은 의원들이 이 구조의 공모자가 된다. 낙인이 두려워 언론이 그어 놓은 선 안에서만 발언하고, 정권과 싸워야 할 자리에서 침묵을 처세로 삼는다. 아이히만이

승진을 위해 성실했듯, 이들은 공천을 위해 성실하게 침묵한다. 대여 투쟁은 실종되고,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것은 당내 지분 계산과 계파의 셈법이다. 언론이 대표를 만들고 그 대표가 공천으로 의원을 줄 세우는 순환이 완성되면, 야당은 싸우는 정당이 아니라 언론에 순치된 정당으로 전락하고, 유권자는 선택지를 도둑맞는다. 이렇게 조종은 '여론'으로, 답합은 '통합'으로 포장된다. 누구도 명시적으로 악을 행하지 않는다. 언론인은 스스로를 균형자라 믿고, 의원은 의회주의를 명분 삼아 투쟁의 책무를 외면할 뿐이다. 악의 평범성은 수용소가 아니라 바로 이런 편집국과 의원회관에서 자란다.

유대인 평의회의 명사들도, 일제의 협력자들도 당대에는 스스로를 현실주의자라 불렀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안위를

위한 작은 배신이 가져올 파국을 예측하지 못했다. 현재 대한민국은 문제의 제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음침한 전체주의 국가로 가고 있다.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사회, 물음 자체가 처벌되는 사회는 이미 자유로운 사회가 아니다.

이승만은 33 년의 망명 세월 동안 독립이 온다는 사실 자체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의 힘은 막연한 낙관이 아니라 확신이었다. 자유는 인간의 본성에 부합하고 전체주의는 그렇지 않기때문에,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한 자유가 이긴다는 확신이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렌트가 말한 가장 단순하고도 어려운 일, 곧 멈추었던 생각하기를 다시 시작하는 일이다. 이승만은 해방된 조국에 돌아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호소했다. 좌경화된 기득권 세력과 낡은 언론이 몇대로 그어 놓은 선

안에서 적당히 타협하는 것은 청년들처럼 사유하기를 포기하지
흘어져 죽는 길이다. 대한민국이 않는 깨어 있는 자유 시민들이
사는 길은 올림픽공원의 하나로 뭉치는 데 있다.

<저자 소개>



김상철 교수는 고려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독일 브레멘대학에서 경제학(사회정책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전공 교수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전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를 역임했다.

이승만 대통령의 근대국민국가 건설 회상

박정이(예비역 육군대장)

6·25 전쟁 이전의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제도주의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전근대적인 특성을 갖고 있었다. 대한민국은 분명히 근대국민 국가의 기본요건인 명확히 구분된 영토, 정당한 물리적 폭력수단의 독점, 정치 엘리트의 동질화 및 국민의 동질화를 통한 국민화, 자원동원체제 구축 등을 고려해 볼 때 아직까지 근대국민국가의 형태를 갖추었다고 볼 수 없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국가체제가 확고히 형성되기도 전에 발발한 6·25 전쟁은 우리 사회에 엄청난 혼란과 충격을 주었으며, 극심한 인적·물적 피해를 가져왔고 많은 시련과 고통을 주었다. 전쟁이라는 것은 사회를 파괴하고 그 지역에 사는 인간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주는 존재임에 틀림없다.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되었으나 이승만 대통령은 일시적인 정전상태인 휴전에 안심하지 않고 전쟁 시에 못지않은 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체결(1953.10.1)하여 북한의 새로운 도발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하고 한·미 합의를사록을 조인(1954.11.17)함으로써 경제개발 및 군비확충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한·미간에 체결된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합의의사록은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확고한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고 더 나아가 국가안보가 확보된 상태에서 안정된 가운데 경제발전을 통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하는데 기

본바탕이 되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반대급부로 복진을 포기해야 했고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상실함으로써 주권의 일부를 침해당하는 대가도 치러야했다.

6·25 전쟁은 비정상적인 일탈행위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현대사에서 큰 획을 긋는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전쟁은 총체적인 사회현상으로 사회변혁의 단초를 제공하는데, 동족상잔의 6·25 전쟁도 엄청난 고통을 가져다 준 파괴의 행위였지만 창조의 기회도 마련하기도 하여 조선왕조의 잔재와 일본 제국주의의 유산을 일소하고 한국사회를 새롭게 변모시켰다.

이승만 정부가 6·25 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동안 국가에서 주어진 의도하지 않은 결과물로서 사회 전반에 걸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6·25 전쟁 결과 통일 민족국가 수립은 요원해지고 남북한이 서로 다른 국가체제를 만들

어내어 한국의 국가는 민족국가의 기본적인 정의에는 부합되지 않으나 전쟁을 거치면서 근대 유럽에서 발전된 근대국민국가(nation state)로 빠르게 성장하였다.

우선, 6·25 전쟁을 통해 국가 이데올로기로서 반공 이데올로기를 강고(強固)히 하여 사회통합을 달성하였고 국민화를 이룩하였다. 해방 후 미군정이 시작되면서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제도들이 도입되어 이를 제헌헌법에 반영함으로써 입헌 민주공화국이 수립되었다. 동서 냉전의 첨예한 대립속에서 공산주의의 팽창을 막는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한 대한민국은 6·25 전쟁을 겪으면서 반공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고 이를 국가 지도이념이자 국시로 삼아 남한 사회의 통합을 이룩하였다.

6·25 전쟁 기간 동안 이승만 정부는 공산주의 세력의 제거와 부역혐의라는 이름하에 진행된 강렬한

이념적 차별, 그리고 군사 및 반공조직의 체계화를 통해 항상적 감시체계를 확립하고 사상통제를 강화하였다. 6·25 전쟁이 이데올로기 지형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데는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실존적 경험과 더불어 북한 점령정책의 실패가 결정적인 기제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6·25 전쟁을 통해 군과 경찰의 급속한 성장과 더불어 무력에 대한 정당한 독점과 통제가 이루어졌다. 6·25 전쟁을 통해 획기적 발전을 가져온 것은 군과 경찰이었다. 경찰은 일제 강점기부터 과대 성장하여 억압기구로 활용되다가 정부 수립과 동시에 새롭게 창설되어 치안업무뿐만 아니라 공비 토벌작전에도 투입됨으로써 그 역량이 크게 확대되었다.

아울러 전쟁을 수행하는 동안 국군이 와해되고 유엔군이 참전하자 이승만 대통령은 국군의 작전지휘

권을 이양하는 조치를 취했는데, 이것은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를 확립한 가운데 국군과 유엔군이 연합작전으로 조기에 북한군의 공격을 격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당시 지휘체계가 마비되고 전쟁수행능력이 불비한 상태에서 전쟁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유엔군사령관에게 작전수행의 무한책임을 부여하고, 비록 유엔에는 가입하지 않았지만 유엔 회원국의 일원으로 전쟁수행에 동참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전투근무지원의 원활한 지원은 물론 군의 신속한 전투력 증강과 전비조달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었으며, 연합작전 지휘체계는 한·미 공동방위의 근간이 되었다.

아울러 한국군의 증강과 병행하여 추진된 교육훈련 혁신을 통해 간부, 특히 장교들의 양성 및 보수 교육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였고 많은 장교들이 미국에 파견되

어 선진 군사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현대화된 강력한 군대 건설의 기반이 마련되기도 하였으며, 이들이 사회에 배출되어 경제개발과 국가건설에도 큰 역할을 하였음을 간과할 수 없다.

6·25 전쟁은 주권재민의 민주주의를 제도화하고 정치체제 구축에도 큰 영향을 미쳤으며, 관료조직을 강화시켜 중앙통제적 행정체계를 확립하였다. 미군정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도입된 자유민주주의 제도는 6·25 전쟁기를 거치면서 악조건 하에서 시험되고 시도되었으며, 헌정체제는 유지되었고 미숙하나마 정당정치와 선거제도가 운영되었다.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여·야당으로 구분되는 정당이 국민들의 심판을 의식하면서 정강과 정책을 내세워 대의정치의 틀을 만들어 나갔으며, 민주정치의 운영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정치경쟁

을 실현하기 위한 장치로서 선거제도를 존중하였다. 아울러 1952년과 1954년의 헌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 국민투표제와 양원제가 도입되었고 대통령의 지위가 강화되어 대통령 중심제를 제도화시켰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 도입과 자본축적 및 자원동원제도를 제도화시켰다.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지배에서 해방된 국민들의 경제적 평등과 황폐화된 경제의 재건 및 빈곤의 극복을 위해 1948년 헌법상의 경제질서는 경제적 자유보다 평등을 중시하여 균등경제, 즉 통제경제를 표방하였다. 헌법조항으로 명시한 농지개혁이 성공적으로 실시되어 소작제가 폐지되고 지주가 몰락하였으며, 적산불하(敵産拂下)로 인해 신흥 자본가 계층이 육성되어 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제 여건이 조성되어 1954년 헌법의 경제조항 개정과 함께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자본주의 질서체제에 편입되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제도로써의 시장이 거의 기능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가가 나서서 시장을 창출할 수밖에 없음을 인식하고 산업구조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자립적인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재건기획팀을 운용하여 산업화 방식으로, 경공업은 자본가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기간산업은 정부가 용자를 통해 조성하는 경공업 - 기간산업 동시 발전노선을 추진하였다.

미국의 대한 경제정책은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해 줌으로써 대한민국의 붕괴를 방지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경제성장’보다는 ‘경제안정’을 최우선시 하였다. 미국은 수차에 걸친 실태파악과 경제협정 체결을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운영에 깊이 관여하여 경제재건과 재정안정을 도모하였으며, 자유주의적 자본주의체제 확립에 크게 기여하였다.

군과 경찰이 크게 성장하면서 자

본축적 및 자원동원체제도 구축되었다. 미국의 원조에 크게 의존하던 군비조달은 조세의 비중을 더욱 확대시켜 나갔고 국채발행 및 공공사업 등을 통해 확충해나갔다. 이승만 정부는 전시 악성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고 막대한 군사비를 충당하기 위해 조세정책과 양곡정책을 전시체제로 전환하여 1950년 12월에 조세 임시증징법을 제정하는 한편 기존세법을 개정하여 증세를 도모하였다. 전세가 계속 악화되자 조세특례법(1951.1)과 임시토지소득세법(1951.9)을 제정하여 전시체제를 강화하였다.

병력동원은 1948년 국군조직법과 1949년 병역법을 제정하여 병무행정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나 전쟁 초기 병력충원은 가두모집에 의한 현지입대가 대부분이었다. 1950년 8월 22일 그동안 보류되었던 병역법이 시행되어 강제징집이 착수되었고 11월에 각 시도에 병사구사령부를 설치함으로써 병력동원 체

제를 어느 정도 갖추 수 있었으며, 1952년에 국방부와 내무부에서 2원적 체제로 운영하던 징집 및 소집업무를 국방부 단일체제로 변경하고 9월에 병역법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실질적으로 강제징집을 실시하게 됨으로써 국민개병제가 제도화되었다.

6·25 전쟁을 통해 성장한 군은 사회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한국 사회에서 군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한국인의 전통적인 상문천무(尙文賤武)의 편견이 깨져갔으며, 군대식 사고방식이 의식 속에 스며들어 군사문화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었다. 군대복무는 농촌의 수백만 청년층을 급속도로 유동시켜 정치·사회세력을 형성하였으며, 거대한 장교단은 하나의 사회집단으로 부상했다.

군문에 들어온 젊은 장정들은 근대적인 생활양식에 신속하게 적응하면서 선진기술과 지휘 및 관리

기법을 체득하여 사회진출 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우수한 행정가로서 활약하게 되었고 체득된 군인정신은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함으로써 1950년대 경제재건과 1960~70년대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북한의 지속적인 대남 위협 하에서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사회적 안정과 국민생활의 질적 개선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전쟁 시 획기적으로 팽창하여 현대화된 강력한 군대가 국가의 안보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6·25 전쟁과 1950년대를 거치면서 교육혁명을 통해 교육인구가 폭증하고 고등교육이 크게 신장하여 한국교육의 재건과 발전이 이뤄져 교육기적을 이룩하였는데, 이를 통해 1960년대 이후 경제발전을 가능하게 하였다. 1950년대 민주·민족·과학교육은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세대를 대량으로 배출하여 자신의 능력으로 자유민주주의체

제를 굳건히 유지시켜 민주화를 달성하고 민족의 대외적 종속을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비축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6·25 전쟁이라는 대(大)전쟁은 한국사회에 엄청난 충격과 더불어 근본적인 변혁을 가져와 조선왕조와 일본 제국주의시대 유제들이 일소되었다. 미군정기와 대한민국 정부수립 시기 도입된 자유민주주의 제도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는 전쟁기와 그 후에 성공적으로 시험되고 제도화되어 대한민국을 더욱 강화된 국민국가로 전변(轉變)시켰다.

한국사회는 자유와 평등의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강력한 반공 이데올로기로 통합되었고 중앙집권적 정치체제와 행정기구 구축으로 국가의 정체성이 확립되고 국가의 능력과 자율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강력하게 성장한 군대 및 경찰에 의해 무력에 대한 정당한

독점이 이뤄져 더 이상 체제전복 위협은 사라졌다. 정전협정에 의해 임시경계선 역할을 하던 38도선이 군사분계선으로서 기능하여 국경선의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영토성도 확보되었다.

19세기 말부터 추진되어온 한국형 근대국민국가 건설 노력은 대한민국의 건국과 더불어 결실을 보게 되나 신생 대한민국은 군사력이 외부로부터 건설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원의 일국 의존도도 낮은 이식국형 국가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의 통찰력 있는 6·25 전쟁 수행을 통해 대한민국은 근대국민국가로 탈바꿈할 수 있었고 동서냉전체제 하에서 강력한 안보국가로 발전하였으며, 1950년대 국가체제 변신에 따른 물적 기초 제공으로 1960~70년대 발전 국가체제를 구축하여 산업화를 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1980년대에 민주화를 이룩할 수 있었다.

6·25 전쟁을 통해 근대국민국가로 거듭 변전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통일을 이룩하여 완전한 단일민족국가를 건설해야 하는 과업을 안고 있다. 21세기를 맞이하여 동북아에서는 미국이 아시아 회귀정책을 선언하고 신국방전략지침을 가시화함에 따라 미·중 패권경쟁이 본격화하기 시작하였다. 러·우 전쟁 발발 이후 구조화되고 있는 유동적인 냉전 상황에 적극 대처하고 한반도 통일을 위한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우리의 국력과 국격을 한층 격상시켜 나가야 한다.

따라서 한반도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선 북한의 개혁·개방을 통한 변화와 주변국과 관련국들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이 아주 중요하다. 북핵문제와 경제지원, 그리고 인권문제들을 연계하여 북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고 변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

이 필요하다. 통일논의의 정치적 접근은 자제되어야 하며, 경제역량의 수단화, 외교역량의 복합화, 정치통합력의 증대가 바로 평화 패러다임 하 통일역량을 배가시키는 전략적 요소가 된다.

<저자 소개>



박정일이 예비역 육군대장은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밀리테크협회 협회장, 한미동맹연합회 명예총재를 역임하고 있다.

숫자로 본 6·25 전쟁

구분	세부 항목	인원·수량
전쟁 기간	6·25 전쟁	1950.6.25 ~ 1953.7.27
국군	사망	137,899 명
	육군	135,858 명
	해군	1,903 명
	공군	138 명
	부상	450,000 명
	포로	8,343 명
경찰	사망	3,131 명
	부상	6,760 명
	실종	7,084 명
북한군	사망	520,000 명
	실종·포로	120,000 명
유엔군	사망	37,902 명
	미군	33,686 명
	영국군	1,078 명
	터키군	966 명
	캐나다군	516 명
	부상	103,460 명
	실종	3,950 명
	포로	5,817 명
중공군	사망	148,600 명
	부상	798,400 명
남한 민간인	사망	244,663 명
	남자	166,104 명
	여자	78,559 명
양민 학살 피해	사망	128,936 명
	부상	229,625 명

출처: 연합뉴스, 2015년 6월 24일

AI 혁명과 부의 재편: 미래 리더가 이해해야 할 시장의 본질

양준모, AI

오늘날 인공지능은 단순한 정보기술의 발전을 넘어 인간의 지식 형성 방식과 산업구조, 기업의 경쟁 방식, 나아가 부의 분배 질서까지 변화시키고 있다. 과거의 산업혁명이 증기기관, 철도, 석유, 철강과 같은 물리적 기술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AI 혁명은 데이터와 알고리즘, 반도체와 컴퓨팅 능력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기술이 달라졌다고 해서 시장의 본질까지 완전히 달라진 것은 아니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생산비용을 낮추고, 시장을 연결하고, 산업의 흐름을 통합하는 기업가가 새로운 부를 창출하였다. 동시에 이 과정에서는 독점, 불평등, 노동 문제와 같은 사회적 갈등도

발생하였다. 따라서 AI 시대의 부의 재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이 지식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살펴보고, 이어 과거 산업화 과정에서 부가 어떤 원리에 따라 이동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데이비드 흄과 임마누엘 칸트의 철학은 AI가 인간의 사고를 어느 범위까지 모방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한다. 코넬리어스 밴더빌트, 존 D. 록펠러, 앤드루 카네기의 사례는 새로운 산업 인프라를 장악한 기업가가 어떻게 막대한 부를 축적했는지를 보여준다. 또한 삼성전자의 역사는 후발 기업이 제조 역량과 기술을 축적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발전한 과정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AI 시대에 부가

어떤 방향으로 재편될 것인지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공한다.

1. AI 시대의 철학적 질문

AI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얼마나 많은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가만 물어서는 안 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인간의 지식과 판단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반복된 경험이 진정한 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기계가 인간과 같은 방식으로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지를 질문해야 한다.

데이비드 흄은 모든 지식이 경험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인간은 감각을 통해 직접적이고 생생한 ‘인상’을 얻으며, 이러한 인상의 희미한 복사물이 ‘관념’이 된다. 인간의 사고는 서로 독립된 관념의 집합이 아니라 유사성, 인접성, 인과성이라는 원리에 따라 연결된다. 초상화를 보면 실제 인물을 떠올리는 것은 유사성 때문이며,

학교를 떠올릴 때 교실이 함께 떠오르는 것은 공간적·시간적 인접성 때문이다. 불을 보면서 열을 예상하는 것은 인과성에 따른 관념의 연결이다.

그러나 흄은 우리가 원인과 결과 사이의 필연적 관계를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인간이 관찰할 수 있는 것은 한 사건 뒤에 다른 사건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다. 불을 만질 때마다 열을 느꼈기 때문에 앞으로도 불은 뜨거울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이러한 기대가 미래의 결과를 논리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반복된 경험은 확신을 만들지만, 그 확신은 엄밀한 증명이라기보다 습관에 가까운 믿음이다.

이러한 흄의 문제의식은 AI의 작동 방식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AI는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하고 그 안에서 반복되는 패턴과 연관성을

찾아낸다. 과거의 사례에서 일정한 규칙을 발견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결과를 예측한다는 점에서 AI의 학습은 흄이 설명한 경험과 관념연합의 구조와 유사하다.

그러나 AI가 높은 확률로 정확한 예측을 산출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현실의 필연적인 인과관계를 이해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AI가 발견한 것은 데이터에 나타난 상관관계일 수 있으며, 과거에 반복된 패턴이 미래에도 반드시 유지된다는 보장은 없다.

임마누엘 칸트는 흄의 회의주의를 수용하면서도 인간의 인식이 단순히 외부 경험의 수동적 축적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았다. 칸트에 따르면 모든 인식은 경험에서 시작되지만, 모든 인식이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정신에는 경험을 가능하게 만드는 선형적 형식이 존재한다. 시간과 공간은 인간이 외부 세계

를 받아들이는 감성의 형식이며, 범주는 경험 자료를 질서화하는 오성의 기본 개념이다.

칸트의 관점에서 인간은 외부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복사하는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자신의 인식 구조를 통해 세계를 구성하고 이해한다. 인간에게 인식되는 세계는 ‘현상’이며, 인간의 인식 능력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사물 자체는 ‘물자체’이다. 인간은 현상을 인식할 수 있지만 물자체를 직접 파악할 수는 없다. 칸트가 말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은 인간의 인식이 대상에 수동적으로 맞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인간의 인식 형식에 따라 나타난다는 관점의 변화이다.

이러한 칸트의 철학은 AI와 인간 지능의 차이를 생각하게 한다. AI도 입력된 데이터를 일정한 구조와 알고리즘에 따라 분류하고 해석한다. 따라서 AI가 제시하는 결

과는 세계 자체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 아니라, 학습 데이터와 모델 구조를 통해 재구성된 결과이다. 인간 역시 자신의 감각과 인식 범주를 통해 세계를 이해하지만, 인간은 자신의 판단을 성찰하고 가치와 목적을 설정할 수 있다. AI가 경험적 패턴을 빠르게 분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목적을 추구해야 하는지, 어떤 결과가 정의로운지, 어떤 판단에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스스로 결정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AI 시대에 필요한 태도는 AI를 무조건 신뢰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AI의 예측이 과거 경험의 반복을 기초로 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그것이 필연적 진리가 아니라 확률적 판단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동시에 AI의 분석 결과가 어떤 데이터와 분류 체계를 통해 만들어졌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AI 시대의 미래 리더에게 필요한 것은 기술 사용 능력뿐 아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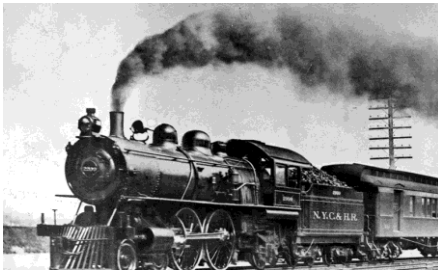
라, 기술이 제시하는 판단의 한계와 전제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철학적 능력이다.

2. 교통혁명과 부의 재편: 코넬리어스 밴더빌트

19세기 미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는 넓은 국토를 하나의 시장으로 연결하는 것이었다. 생산시설이 확대되어도 원료와 상품, 노동력을 신속하고 저렴하게 이동시킬 수 없다면 대량생산의 효과는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운하, 증기선, 철도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산업화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성장 인프라였다.

코넬리어스 밴더빌트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가장 먼저 활용한 기업가 중 한 사람이었다. 그는 증기선 사업에서 운임을 낮추고 서비스의 속도와 정시성을 개선함으로써 수요를 확대하였다. 저가 운

임은 단순한 가격 인하가 아니라 경쟁자를 압박하고 시장점유율을 높이는 전략이었다. 그는 선박 운영 경험을 통해 자본과 운송 네트워크를 축적했으며, 규모의 경제를 활용하여 비용 경쟁력을 강화하였다.



밴더빌트는 성장의 중심이 증기선에서 철도로 이동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그는 여러 철도 노선을 통합하고 운영체계를 효율화하였다. 특히 뉴욕과 중서부를 연결하는 철도망은 동부 대도시와 내륙의 생산지역을 하나의 시장으로 연결하였다. 철도의 발전으로 상품과 원료, 노동력의 이동 시간이 단축되었고, 기업의 거래비용도

낮아졌다. 지역별로 분리되어 있던 시장은 점차 전국시장으로 통합되었다.

밴더빌트의 성공은 기술 그 자체보다 기술을 조직하고 연결하는 능력이 더 중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증기선과 철도는 그가 발명한 기술이 아니었다. 그는 운송수단을 대규모 네트워크로 통합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새로운 부를 창출하였다. 오늘날의 표현을 사용한다면 그는 교통망이라는 플랫폼을 장악한 인프라 기업가였다.

그의 경영에는 명암이 공존하였다. 비용 절감과 노선 통합은 운송 효율성을 향상시켰고 대규모 자본투자를 가능하게 했지만, 경쟁자를 압박하고 시장지배력을 확대했다는 비판도 받았다. 그의 사례는 산업의 선도자가 ‘산업의 개척자’로 평가받는 동시에 ‘강도 귀족’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밴더빌트가 남긴 역사적 의미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증기선과 철도를 통해 지역시장을 전국시장으로 연결하였다. 둘째, 대규모 자본과 조직을 결합한 통합경영의 전형을 제시하였다. 셋째, 산업의 효율성 향상과 독점적 시장지배를 통해 산업을 혁신했다. 그는 운송비용을 낮춘 기업가였으며, 미국의 전국시장을 현실화한 인프라 자본가였다. 밴더빌트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산업을 이끌면서 부를 재편했다.

3. 석유산업의 통합과 독점: 존 D. 록펠러

남북전쟁 이후 미국에서는 철도, 도시, 제조업이 빠르게 성장하였다.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조명용 등유와 각종 석유제품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였다. 철도 운송망의

확대와 대량생산 체제의 형성은 석유산업이 전국적 규모로 발전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였다.

존 D. 록펠러는 원유를 직접 채굴하는 것보다 원유를 정제하고 저장하며 운송·판매하는 과정을 통합하는 것이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을 파악하였다. 그는 1870년 Standard Oil을 설립한 이후 정유업을 대규모 조직으로 재편하였다.

록펠러의 첫 번째 경쟁력은 규모의 경제였다. 대량 정제와 설비의 표준화를 통해 생산비를 낮추고 제품의 품질을 안정화하였다. 두 번째 경쟁력은 수직적 통합이었다. 정제, 저장, 운송, 유통을 하나의 체계 안에서 관리함으로써 외부 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산업의 흐름을 통제하였다. 세 번째 경쟁력은 물류 장악이었다. 철도 회사 및 파이프라인과의 계약을 활용하여 경쟁업체보다 유리한 운

송조건을 확보하였다.

록펠러의 혁신은 단순히 석유 생산량을 늘린 데 있지 않았다. 그는 산업 전체의 흐름을 조정하는 현대적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생산과 운송, 유통을 통합하고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줄임으로써 소비자에게 안정적인 가격과 품질의 석유제품을 공급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그는 효율의 혁신가이자 현대적 대기업 경영의 선구자였다.



그러나 록펠러의 성장 전략은 독

점 문제를 발생시켰다. 경쟁사 인수와 압박, 철도 운임의 특혜, 시장지배력의 남용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Standard Oil은 시장 효율을 높였지만, 그 과정에서 자유로운 경쟁 질서를 훼손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갈등은 미국의 반독점 규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Standard Oil은 1870년에 설립되었고, 1882년에는 트러스트 구조를 강화하였다. 미국은 1890년 셔먼 반독점법을 제정하였으며, 1911년 연방대법원은 Standard Oil의 분할을 명령하였다. 이 사건을 통해 대기업의 효율성을 인정하더라도 시장 경쟁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독점은 규제해야 한다는 원칙이 확립되었다.

록펠러는 말년에 교육, 의학 연구, 공중보건 분야에 막대한 재산을 기부하였다. 대학교 연구기관을 지원하고, 질병 연구와 병원 설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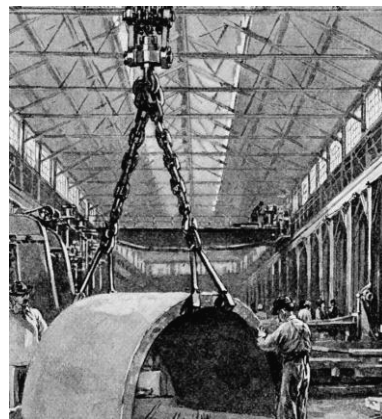
을 후원했으며, 위생과 예방 중심의 국제 보건사업을 확대하였다. 그의 자선사업은 개인적인 기부를 넘어 전문적으로 운영되는 현대적 재단의 모델을 제시하였다.

록펠러는 석유산업을 조직화하고 대기업 경영체제를 발전시킨 인물이다. 동시에 그의 기업은 미국 반독점 규제의 상징이 되었다. 그는 효율의 혁신가였지만, 독점 규제의 필요성을 일깨운 기업가이기도 하였다. 록펠러도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산업을 이끌면서 부를 재편했다.

4. 철강산업과 부의 사회적 책임: 앤드루 카네기

앤드루 카네기의 삶은 19세기 미국의 산업화와 사회적 상승 이동을 대표한다. 그는 1835년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나 1848년 미국으로 이주하였다. 초기에는 전신 기사와 철도회사 직원으로 일하면서

산업 네트워크와 투자에 대한 감각을 키웠다. 1870년대부터 철강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였고, 1901년 Carnegie Steel을 매각하면서 거대한 부를 축적하였다.



철강은 미국 산업화의 물질적 기반이었다. 철도망과 교량, 도시 건축물, 공장, 기계, 선박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값싸고 표준화된 철강을 대량으로 공급해야 했다. 카네기는 철강 생산비를 낮추고 공급량을 확대함으로써 미국 산업 인프라의 확장에 기여하였다.

그의 핵심 전략은 수직적 통합과 기술혁신이었다. 그는 철광석과

석탄 등 원료의 확보에서부터 철도와 물류, 제철과 압연, 판매에 이르는 각 단계를 결합하였다. 이를 통해 외부 공급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비용을 직접 통제하였다. 또한 대규모 설비와 새로운 제철기술을 도입하여 생산성을 향상시켰다. 그 결과 카네기의 기업은 값싸고 표준화된 철강을 전국 시장에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었다.

카네기의 성공에도 심각한 사회적 비용이 따랐다. 1892년 발생한 홈스테드 파업은 카네기식 경영의 어두운 측면을 보여준다. 생산비를 절감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과정에서 임금과 노동조건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었다. 노조 탄압 논란과 노동자에 대한 강경 대응은 자본과 노동 사이의 충돌을 상징하였다.

카네기는 산업의 개척자로 평가받았지만 노동 문제에서는 강도 귀

족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는 생산성과 효율성의 향상이 반드시 모든 사회 구성원의 이익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기업의 성장이 노동자의 삶과 조화를 이루지 못할 경우, 기술혁신은 사회적 갈등을 확대할 수 있다.

카네기는 말년에 ‘부의 복음’이라는 원칙을 제시하였다. 그는 부자가 막대한 재산을 개인과 가족을 위해서만 사용해서는 안 되며, 살아 있는 동안 사회 발전을 위해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공공도서관 건립을 지원하여 지식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고, 대학과 교육기관, 장학사업과 연구 활동을 후원하였다. 또한 음악당과 학술기관, 국제평화 사업에도 재산을 기부하였다.

카네기는 철강산업을 통해 미국 산업화의 기반을 구축한 산업가였다. 동시에 그는 부의 사회적 환

원을 강조한 자선가였다. 노동갈등과 대기업 집중 문제는 그의 성공이 가진 사회적 비용을 보여준다. 그의 삶은 부를 창출하는 능력만큼 그 부를 어떻게 사용하고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제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네기가 생산성 향상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미국 사회는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지불했을 것이다.

5. 산업혁명기 기업가들의 공통 원리

밴더빌트, 록펠러, 카네기는 서로 다른 산업에서 활동했지만 이들의 성공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존재한다.

첫째, 이들은 시대의 핵심 인프라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였다. 밴더빌트는 교통망, 록펠러는 에너지 공급망, 카네기는 철강 생산 체계를 장악하였다. 이들이 선택

한 산업은 단순한 소비재 산업이 아니라 다른 산업의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 산업이었다.

둘째, 이들은 분산되어 있던 생산과 유통의 과정을 하나의 조직 안에 통합하였다. 밴더빌트는 철도 노선을 통합했고, 록펠러는 정제·저장·운송·판매를 결합했으며, 카네기는 원료·물류·생산·판매를 연결하였다. 시장의 각 단계를 연결하고 통제하는 능력이 새로운 부의 원천이 되었다.

셋째, 이들은 규모의 경제를 활용하여 비용을 낮추었다. 대규모 생산과 표준화, 효율적인 조직 운영은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낮추고 시장을 확대하였다. 비용을 가장 빠르게 낮춘 기업이 시장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넷째, 이들의 성공은 독점과 노동갈등이라는 문제를 발생시켰다. 대규모 기업은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였지만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만들었고, 자본과 노동 사이의 힘의 불균형을 심화했다. 이에 따라 반독점 규제와 노동자의 권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등장하였다.

AI 시대에도 이러한 원리는 상당 부분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데이터, 반도체, 클라우드, AI 모델, 플랫폼을 통합하는 기업은 막대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AI 서비스를 대규모로 제공할수록 단위비용이 낮아지고, 더 많은 이용자가 축적될수록 더 많은 데이터가 확보되는 구조도 형성될 수 있다. 따라서 AI 산업에서도 효율성의 혁신과 시장 집중이 동시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6. 삼성전자의 성장과 한국 산업화

삼성전자의 역사는 한국의 산업화와 기술축적, 글로벌화, 디지털 전환이 압축된 사례이다. 삼성의 출

발은 1938년 대구에서 설립된 삼성상회였다. 초기에는 식료품과 무역업을 기반으로 성장하였고, 이후 섬유, 제당, 금융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하였다. 삼성전자는 1969년 전자 제조업에 진입하면서 본격적인 기술기업으로의 전환을 시작하였다.

1970년대 삼성전자는 흑백 TV,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을 대량 생산하고 수출을 확대하였다. 이 시기의 핵심은 첨단 원천기술의 확보보다 생산 규모와 품질관리 능력의 축적에 있었다. 대량생산을 통해 제조 공정을 학습하고 수출시장에서 가격과 신뢰를 확보한 경험은 이후 기술기업으로 발전하는 기반이 되었다.

1980년대에는 연구개발 조직을 확대하고 반도체와 정보통신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였다. 이는 단순 조립과 가전제품 생산에서 핵심 부품과 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제조

기업으로 이동한 과정이었다. 반도체산업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기술 변화가 빠르며 경기 변동도 심한 분야였다. 삼성전자는 지속적인 설비투자와 연구개발을 통해 기술을 내재화하고 생산 역량을 높였다.



출처: 삼성물산 상사부문 | 회사소개 | 상사부문

1990년대와 2000년대에는 메모리 반도체, 디지털 제품, 브랜드 혁신이 결합하였다. DRAM 등 핵심 부품에서 규모와 공정 경쟁력을 확보하고, 디지털 TV와 새로운 모바일 제품을 통해 기술 이미지를 구축하였다. 또한 품질과 디자인, 기업 이미지와 프리미엄 전략을 강화하였다.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는 외국 기술을 추격하는 기업에

서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이동하였다.

2010년대에는 갤럭시 스마트폰과 메모리, 디스플레이 경쟁력이 하나의 성장 엔진으로 결합하였다. 갤럭시 브랜드는 세계 소비자와 삼성전자를 직접 연결하는 접점이 되었다. 한편 메모리와 디스플레이는 완제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기업의 수익성을 뒷받침하였다. 부품과 완제품을 함께 보유한 사업구조는 삼성전자의 중요한 경쟁력이었다.

2020년대에 들어 삼성전자는 AI 수요를 겨냥하여 고대역폭메모리인 HBM, DDR5, 기업용 SSD 등 고부가가치 메모리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선단 파운드리 공정과 고성능 컴퓨팅 고객 확보를 추진하며, Galaxy AI, Bespoke AI, AI TV 등 기기 중심의 AI 경험을 확장하고 있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25년에 매출 333

조 6천억 원, 영업이익 43조 6천억 원, 연구개발투자 37조 7천억 원을 기록하였다.

삼성전자의 역사적 의미는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무역과 가전에서 출발하여 한국 제조업 발전과 함께 성장한 산업화의 기업이다. 둘째, 단순 조립을 넘어 반도체, 디스플레이, 통신 분야의 기술을 축적한 기술 내재화의 기업이다. 셋째, 품질관리와 디자인, 브랜드 전략을 통해 세계 소비자 시장에 진출한 글로벌 브랜드 기업이다. 넷째, 메모리, 파운드리, 모바일, 가전과 서비스를 AI 생태계로 연결하려는 종합 기술기업이다.

삼성전자의 다음 과제는 기존의 하드웨어 제조 역량을 AI 시대의 플랫폼 및 핵심 부품 지배력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제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생산하는가가 경쟁력의 핵심이었다.

AI 시대에는 제품과 데이터, 소프트웨어, 서비스가 하나의 생태계로 연결되어야 한다. 반도체의 성능뿐 아니라 AI 모델과 서비스, 사용자 경험을 동시에 확보해야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유지할 수 있다.

7. AI 시대에 부는 어떻게 재편되는가

과거 산업혁명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볼 때, AI 시대의 부는 단순히 AI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AI 생태계의 핵심 병목을 지배하는 기업과 개인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첫째, AI 시대의 부는 핵심 인프라를 보유한 주체에게 이동한다. 19세기의 철도와 석유, 철강이 산업화의 기반이었다면, AI 시대에는 반도체, 데이터센터, 전력, 클라우드, 네트워크가 핵심 인프라가 된다. AI 모델의 성능은 알고리즘만

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고성능 반도체와 대규모 데이터,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컴퓨팅 인프라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기반을 통제하는 기업은 높은 시장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다.

둘째, 산업의 각 단계를 통합하는 기업이 유리하다. 밴더빌트, 록펠러, 카네기가 생산과 운송, 유통을 통합한 것처럼 AI 기업도 반도체, 클라우드, 모델, 플랫폼, 기기, 서비스를 하나의 생태계로 연결하려 한다. 이용자가 특정 생태계에 편입될수록 다른 서비스로 이동하는 비용이 커지고 기업의 시장지배력은 강화된다.

셋째, 데이터와 학습효과가 새로운 규모의 경제를 만든다. 더 많은 이용자를 확보한 기업은 더 많은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으며, 축적된 데이터는 서비스의 성능을 개선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개선된 서비스는 다시 더 많은 이용

자를 끌어들이는다. 이러한 순환구조는 선도기업의 우위를 강화하고 후발기업의 진입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넷째, 지식과 노동의 가치가 재편된다. 반복적이고 표준화된 업무는 AI에 의해 대체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문제를 정의하고, AI가 생성한 결과를 검증하며, 새로운 목적과 전략을 설정하는 능력의 가치는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단순한 정보 보유보다 판단, 창의성, 책임, 의사소통 능력이 중요해질 것이다.

다섯째, AI의 확산은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불평등을 확대할 수 있다. AI를 보유하고 통제하는 기업과 AI를 단순히 사용하는 노동자 사이의 소득격차가 커질 수 있다. 플랫폼 기업과 중소기업, 고숙련 노동자와 저숙련 노동자 사이의 격차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과거의 산업혁명에서 독점과 노동

갈등이 발생했던 것처럼 AI 혁명에서도 경쟁정책, 노동정책, 교육정책이 중요해질 것이다.

8. 미래 리더에게 필요한 원칙

AI 시대의 미래 리더는 기술을 따라가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기술의 본질과 시장구조, 사회적 영향을 함께 이해해야 한다.

첫째, AI의 예측과 판단을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어서는 안 된다. 흠의 철학이 보여주듯 반복된 과거 경험은 미래에 대한 기대를 만들지만, 미래를 필연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 AI의 결과는 확률적 판단이며, 데이터의 편향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둘째, AI가 어떤 구조를 통해 현실을 해석하는지 검토해야 한다. 칸트의 철학에서 인간이 시간과 공간, 범주를 통해 세계를 인식하는 것처럼 AI도 데이터와 알고리즘이

라는 구조를 통해 현실을 재구성한다. 따라서 AI가 제시한 결과보다 그 결과가 형성된 조건과 전제를 살펴보아야 한다.

셋째, 시대의 핵심 인프라를 파악해야 한다. 밴더빌트는 철도망을, 록펠러는 석유 공급망을, 카네기는 철강 생산체계를 장악하였다. AI 시대에는 반도체, 데이터, 에너지, 클라우드와 플랫폼이 핵심 인프라가 될 수 있다. 미래 리더는 산업의 표면적 유행보다 전체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병목이 어디에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넷째, 규모의 확대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야 한다. 효율성만을 추구하면 독점과 노동갈등,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 기업은 기술혁신의 이익을 사회와 공유하고, 노동자의 전환교육과 새로운 기회 창출에 책임을 져야 한다.

다섯째, 지속적인 기술축적과 조직학습이 필요하다. 삼성전자의

역사는 후발기업도 생산 경험과 품질관리, 연구개발, 브랜드 혁신을 장기간 축적하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AI 시대에도 단기적인 유행을 추종하기보다 장기적인 연구개발과 인재 양성, 조직 역량의 축적이 중요하다.

결론

AI 혁명은 인간의 지식 형성 방식과 기업의 생산구조, 노동시장, 부의 분배 질서를 동시에 변화시키고 있다. AI 시대의 변화는 역사적 맥락과 단절된 새로운 현상만은 아니다. 19세기 산업화 과정에서도 새로운 기술과 인프라를 장악하고, 생산과 유통을 통합하며, 비용을 낮춘 기업가가 막대한 부를 축적하였다.

밴더빌트는 교통망을 통합하여 미국의 전국시장을 현실화하였다. 록펠러는 석유의 정제와 운송, 판

매를 통합하여 현대적 대기업 체제를 구축하였다. 카네기는 철강의 대량생산을 통해 미국 산업화의 물질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들은 모두 산업의 효율성을 높였지만, 동시에 독점과 노동갈등, 불평등이라는 문제를 남겼다. 그렇지만 그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미국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 근로자들이 누리는 풍요도 없었을 것이다.

삼성전자는 한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제조 역량을 축적하고, 반도체와 디지털 기술을 내재화하며, 글로벌 브랜드로 발전하였다. 앞으로 삼성전자를 비롯한 기술기업의 과제는 하드웨어 경쟁력을 AI 시대의 플랫폼, 부품, 서비스 경쟁력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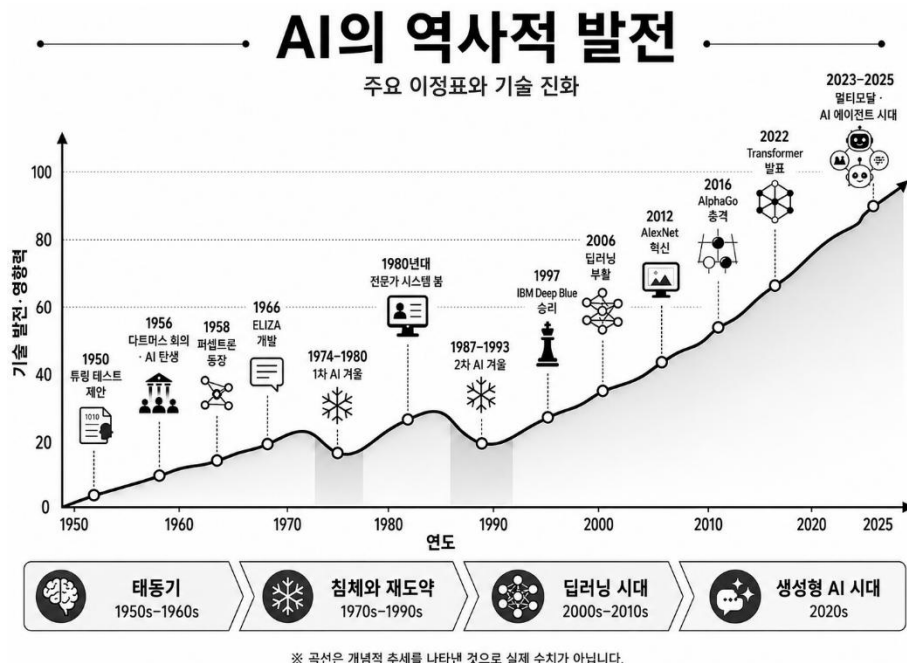
결국 AI 시대의 부는 핵심 인프라와 기술을 보유하고, 산업의 흐름을 통합하며, AI를 실제 생산성과 새로운 가치로 전환하는 주체에게

이동할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미래 리더십은 부를 창출하는 능력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AI의 한계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기술 혁신의 성과를 사회와 공유하며, 경쟁과 공공성 사이의 균형을 설계해야 한다.

AI 혁명은 단순히 인간의 일을 기계로 대체하는 변화가 아니다. 그

것은 인간이 무엇을 알고, 어떻게 판단하며, 어떤 방식으로 부를 창출하고 분배할 것인가를 다시 묻는 문명적 전환이다. 미래를 이끄는 사람은 AI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AI가 만들어내는 변화의 구조와 책임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일 것이다.

출처: 본 원고는 강의ppt를 AI를 활용하여 칼럼으로 바꾼 글이다.



출처: ChatGPT

AI는 컴퓨터이다. AX를 이야기하지만 과거의 디지털화 및 스마트화와 다를 바가 없다. 현재 컴퓨터의 능력이 발전하면서 흙의 경험론적 알고리즘으로 컴퓨터가 재무장했다. 빅데이터를 처리하고, 언어 능력을 겸비한 컴퓨터는 경이롭다. 과거 AI가 사장된 것은 컴퓨터 능력의 한계로 인간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의 컴퓨터 기술은 인간을 능가할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AI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이유다. 이제 AI로 부를 재편하기 위해서 리더는 AI가 컴퓨터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리더들이 AI의 본질을 파악하여 AI를 둘러싼 생태계를 이해하고 이를 장악하기 위한 플랫폼을 개발한다면 거대한 부의 창출과 재편 과정 속에서 우리 모두를 풍요롭게 만들 것이다.

특집

대한민국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1. 역사적 사실과 역사 인식, 그리고 정치

양준모

2. 새역사국민운동 소개

AI

3. 우남이 수강한 역사강의

양준모

1. 역사적 사실과 역사 인식, 그리고 정치

양준모

우리 역사 교육과 역사 인식에서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찾아보기는 매우 어렵다. 일부 역사 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왜곡된 역사 방법론을 받아들여 역사학을 드라마 창작학으로 바꾸어 버렸다.

정치세력들은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나 그 주인공의 후예가 되기 위해 그러한 역사방법론을 교육에 반영되도록 힘을 보탰다. 정치 세력은 역사를 왜곡하여 다른 정치 세력을 악인으로 묘사하고 처단의 대상으로 삼기도 하고, 법을 만들어 역사 드라마의 주도권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기도 한다.

현대사의 고비마다 발생한 무수한 역사 왜곡이 주된 역사적 인식으로 자리매김하고, 반대한민국 세력이 대한민국 역사의 주류로서

등장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자유라는 말도, 민주란 말도, 그리고 민족과 통일, 평화의 언어가 모두 오염됐다. 언어 및 역사 왜곡은 공산주의자들과 정당성을 찾고자 한 집권 세력, 그리고 당시 부패세력에 의해 주도적으로 진행됐다.

역사적 전환점에서 한반도는 국제관계와 무관하게 움직일 수가 없었다. 조선왕조와 대한제국의 부조리를 경험하고 새로운 세상을 꿈꿨던 사람들은 당시의 국제관계 속에서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를 선택했다. 그 결과는 대한민국의 건국과 반대한민국 세력의 반역으로 발생한 분열이었다. 이 반역 세력이 한반도의 비극을 만들고 지난 100여년의 역사를 왜곡

했다. 불행하게 대한민국은 반역 세력을 추종하는 세력의 역사 왜곡을 막지 못하고 있다. 이들이 영화를 만들고 소설을 창작하여 역사 인식을 교묘하게 왜곡했다. 일부 학자들은 친일 물이에 입을 단았고, 정치 세력들은 건국 세력을 타도하기 위해 역사 왜곡에 동참했다. 광주의 불행은 역사 왜곡의 새로운 계기를 만들었다. 굳건하게 뭉친 지역정치에 편승하여 반대한민국 세력이 주도권을 잡기 시작했다. 광주의 비극을 고리로 대한민국의 서사를 바꾸기 시작했다.

대한민국과 반대한민국의 역사전쟁은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전쟁이었다. 100년 전에도 지금도 이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비극의 시작을 외면한 역사 기억

만민공동회에서 개혁을 부르짖던 사람들이 탄압을 받기 시작했다.

이승만은 한성감옥에 갇혔다. 그가 꿈꾼 세상은 자유가 보장되는 법치의 나라였다. 한성감옥에서 젊은 이승만이 써내려 간 독립정신은 우리에게 새로운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승만은 감옥에서 나와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을 만나러 미국으로 건너갔다. 조선과 미국이 맺은 조미통상우호조약을 근거로 도움을 청했다. 이승만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외교의 가능성을 경험했다. 도미한 이승만은 한성감옥과 배재학당에서 글로 배운 세계를 미국에서 실제로 경험하게 된다.

이승만은 조선의 절영도를 차지하려는 러시아의 야욕을 고종을 설득하여 저지한 경험을 갖고 있었다. 이승만은 독립정신에도 러시아의 속성을 기술하고 있다.

이승만이 105인 사건으로 다시 조국을 떠났다. 독립과 새로운 나라를 위해 평생의 투쟁을 시작했다.

105인 사건으로 조국을 떠난 이들 중에서 이동휘는 전혀 다른 길을 걸었다.

공산주의는 기본적으로 피해의식과 이로 인한 분노로 구성된다. 이론적으로 공산주의는 어떠한 타당성도 인정받기 어렵다.

이동휘가 국제 관계와 공산주의 이론에 대해 얼마나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한인 사회당 및 고려공산당의 창당하면서 공산주의 운동을 이끌었다. 격정인 연설을 했다는 이야기로 판단할 때, 이동휘가 겪은 조선에서의 좌절과 105인 사건으로 피해의식과 분노가 내재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RSFSR)의 노동정부(레닌 정부)가 이동휘가 이끄는 한인사회당에게 거액의 자금을 지원하여, 한인들의 공산주의 운동을 지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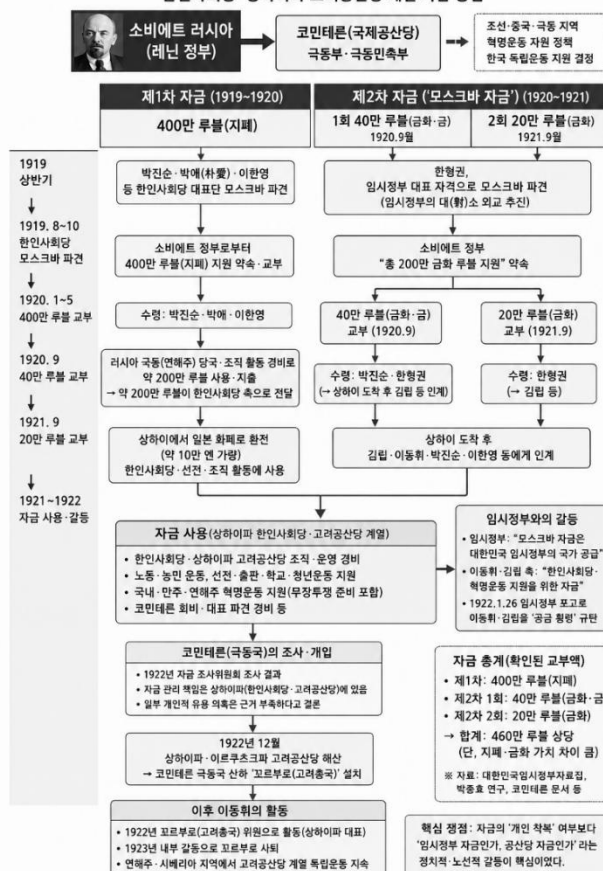
상해 임시정부는 좌우 합작 정부였다. 레닌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은 이동휘는 임시정부를 장악하기 위해 이승만을 공격했다. 레닌 정부가 지원한 자금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고, 임시정부는 1922년 1월 26일 공식적으로 이동휘와 김립에 대해 자금 횡령으로 비난했다. 이동휘는 1921년 1월 임정을 떠나 공산주의 운동에 매진한다. 2021년 5월 이동휘 주도로 상해파 고려공산당이 설립되고,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과 대립한다. 2021년 6월 자유시에서 레닌의 지원을 기대했던 공산당 세력들은 무장해제 과정에서 대립하여 비극이 발생한다. 자유시 참변은 상하이파와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 사이의 군통수권 경쟁, 여러 독립군 부대 사이의 지휘권 갈등, 그리고 코민테른·극동공화국의 개입과 대일정책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국 극동공화국 군대가 상하이파 계열 사할린의용대를 강제로 무장해제

하면서 발생한 참변이다. 1922년 말 레닌정부는 두 고려공산당을 모두 해산시키고 코민테른 극동국 산하에 ‘코르뷰로(Корбюро, 고려총국)’를 설치했다. 이동휘는 코르뷰로 위원으로 활동했다. 무장독

립운동가라고 미화된 세력들은 사실 코민테른 고려총국 위원이 이끈 공산세력이었고, 레닌과 소련의 자금을 받아 공산주의 활동을 한 사람들이었다.

레닌자금(소비에트 자금) 흐름도 1919~1922

한인사회당·상하이파 고려공산당 계열 자금 중심



출처: ChapGPT

좌우 합작으로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임시정부는 공산세력에 의해 분열됐다. 공산세력은 임시정부를 장악하지 못하자 고려공산당을 세우고 대립하다 동족을 죽이고 코민테른의 고려총국으로 레닌과 이후 소련에 복속됐다. 처음부터 독립과는 무관했다.

코민테른이 1922년 1월 21일~2월 2일 모스크바·페트로그라드에서 주최한 ‘원동민족혁명단체대표회’(극동노력자대회, Congress of the Toilers of the Far East)에 중국·한국·일본·몽골 등에서 대표들이 참가했다. 일본도 참가했다는 점에서 독립운동이 아니라 공산주의 운동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이곳에 참가한 많은 대표들이 공산주의 운동에 헌신한다. 이승만이 이끄는 임시정부는 당시 워싱턴 회의에 참석했고, 코민테른은 워싱턴 회의에 대항하기 위해 원동민족혁명단체대표회를 만들었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대립은 이때부

터 본격화했다.

1995년 이동휘는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받았다. 김영삼 정부는 역사바로세우기 운동으로 역사를 정치화했다. 공산주의자, 자유시 참변으로 동족의 수많은 죽음에 책임이 있는 자, 임시정부를 장악하여 공산주의 운동을 확대하려 한 자, 공산국가의 자금을 받아 조직을 운영한 자, 대한민국 건국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자가 건국훈장을 받았다.

자유민주주의는 사라지기 시작했고, 민족을 이야기하지만 반민족적 행위자도 훈장을 받았다. 이 사건은 공산주의자들이 우리 역사를 장악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우리의 역사적 기억 속에는 대한민국이 무수히 많은 항일무장투쟁으로 독립된 나라로 그려져 있다.

역사적 기억과는 달리 역사적 사실로는 자유시 참변 이후 무장 세

력은 거세됐다. 홍범도는 자유시 참변의 학살자 편에서 재판관으로 활동했고 이동휘도 이 비극 발생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동휘, 홍범도, 박헌영, 여운형 등 레닌과 스탈린 등 공산주의자들과 함께 한 사람들이 우리 역사적 기억 속에는 독립운동가로 자리매김하고, 국민은 반대한민국 세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하지 못하게 됐다. 무장 독립운동을 지렛대 삼아 공산주의 계열의 정치인들이 정통성을 주장하며 본격적으로 정치 전면에 등장한 계기도 만들었다.

해방정국에 대한 역사왜곡

1945년 소련의 한반도 점령은 비극의 구체화였다. 러시아는 조선을 압박하여 절영도를 차지하려는 야욕을 보였다. 그때에도 이승만이 나서 러시아의 야욕을 막았다. 이승만은 러시아의 야욕에 대해

1904년 독립정신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바 있다. 러일전쟁으로 잠시 꺾인 러시아의 영토 야욕은 2차 세계대전으로 다시 부활했다. 동유럽에서의 소련의 영토확장이 가시화했다. 이제는 소련이 한반도를 장악하기 위해 진주하는 것이다. 러시아 역사를 전공했다는 학자들은 소련이 영토야욕을 보인 적이 없다고 방송에서 선전한다. 소련이 자신을 해방군이며 친구라고 선전할 때, 공산세력들은 스탈린 만세를 외쳤다.

스탈린은 공산주의 확산과 영토 확대라는 야욕으로 한반도 이북지역을 점령했다. 소련은 한반도 진입 이후 바로 분단적 작태를 보였다. 소련군은 진주 직후, 38선 통행을 엄격히 통제하여 남쪽으로 가는 차량과 물자 운송을 제지하고 철도교통 중단시켰다. 미국의 계속된 항의에도 소련은 분단을 고착화했다. 1945년 10월에는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 설치와 인민위

원회 연합대회를 개최하고 12월에는 김일성을 내세워 실질적인 정부 수립에 나섰다. 스탈린의 1945년 9월 20일 지령은 분단의 책임이 북한과 소련에 있음을 만천하에 알렸다. 북한의 실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북한의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공산주의자들의 분단 구축과정>

1945.8 소련군 점령
1945.9 스탈린 지령
1945.10~11 북한만의 정치·행정기관 구축
1946.2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1946.3 토지개혁
1946.8 산업국유화
1947.2 북조선인민위원회
1947.11~1948.4 독자 헌법 작성
1948.2.8 조선인민군 창설
1948.9.9 북한 정권 수립

1946년 3월 5일 김일성은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토지 수탈을 시작했다. 이것은 공산

정권의 수립과 함께 공산주의 경제체제를 구축을 선언한 것이다. 북한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 우리 기억에서 사라진 역사적 사실이다

박헌영과 같은 남한에서 활동하는 공산주의자들은 종북세력과 함께 남한의 혼란을 야기했다. 이승만의 1946년 6월 3일 정읍선언은 남북분단의 고착화를 저지하고 공산주의 세력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서울신문 보도에서 알 수 있듯이 일부는 이를 단정수립으로 몰아부쳤다. 김구가 이끄는 한독당은 반대 성명을 냈다. 이승만의 기자회견에서 단정 운운에 대해 조금 하게 선동하지 말고 대응방안을 찾자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당시에도 분명히 단정이 아님을 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한민국 세력은 이를 분단의 시작으로 왜곡하여 선동하기 시작했다.

공산주의 세력과 일부 역사가들은 소련의 위성국가 만들기는 외면하고 이승만을 폄훼하고 북한이 마치 통일 세력인 것으로 포장하고 나섰다. 반대한민국 세력들은 김구를 가교로 삼아 민족의 통일을 말하기 시작했다. 통일의 의미가 둘로 나누어졌고, 공산주의자들은 통일의 의미를 공산화로 사용했다.

역사적 사실과 괴리된 역사적 기억과 정치

김영삼 대통령은 1993년 2월 25일 제14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더 나을 수는 없습니다.’라고 선언했다. 생존을 구걸했던 과거는 사라졌다. 소위 같은 민족이라는 사람들이 99만명의 민간인 피해를 만들었다. 62만명의 대한민국 군인이 피해를 입었다. 북한에 의한 민간인 학살자수는 약 13만 명에 달한다. 북한군과 북한 추종 세력들은 민간인을 산채로 불질러 죽이고, 생매장하고, 쇠사슬로 묶어 죽였다. 한반도를 비극으로 만들었던 북한을 우리의 생명을 구해준 동맹보다 낮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학살 현장: 북한과 북한 추종세력은 전국에서 양민과 포로들을 학살했다.

사진: 연세대학교 이승만연구원

민족 정기를 운운하면서 전국적으로 쇠말뚝 뽑기 운동이 전개됐다. 친일 청산은 공산주의자 박헌영이 세력 규합을 외쳤지만 해방된 지 50년도 더 지난 대한민국에서 정치적 세력 강화를 위해 다시 벌여졌다.

여자근로정신대라는 제도와 종군 위안부 문제가 역사적 사실과 부합되지 않아도 반일운동이면 허용이 됐다. 역사적 사실은 중요하지 않았다. 대중의 역사적 기억만이 중요했다. 그 기억은 소설이나 영화에 의해 형성됐을 뿐, 역사적 사실과는 거리가 있었다.

대한민국에서 역사적 사실을 실종됐고, 반대한민국 세력이 자신들이 창작한 역사적 기억 속에서 정치적 주도권을 장악했다.

역사 왜곡과 자유민주주의의 위기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사립 대학의 분규가 발생하고 정이사를

자신의 지지세력으로 바꾸었다. 그 대학 캠퍼스에는 제2의 건학이라는 기념비가 있다. 사립대학의 주인이 바뀌었다.

외환위기로 쓰러져가 금융권은 구조조정 속에서 주도 세력이 교체됐다.

노조는 사회적 합의라는 미명하에 정책과 경영에 개입하는 정치 집단으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노조가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 법 규정은 사문화했다.

노무현 정부는 대한민국을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역사’를 가진 나라로 규정했다. 그동안 반대한민국 세력이 창작한 역사 드라마가 대한민국 대통령의 역사적 기억 속에 투영됐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홍범도의 홍상이 육군사관학교에 설치되고, 그의 유해는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이뿐 아니라 전범인 김원봉을 우상화하고 정율성을 칭송하기

에 이르렀다.

법치주의가 아무 법이나 만들어 시행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국회를 장악했다. 과거 왕조시대도 법령으로 다스렸지만 이를 법치주의라 이야기하지 않는다. 자의적인 법률들이 무수히 많은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정됐다. 반대한민국적 법률들이 역사왜곡 속에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허물고 있다. 재산권은 법률로 훼손되고 최저임금이라는 제도를 통해 가격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무너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근대화, 그리고 산업화를 바탕으로 건국됐다. 정의 세력의 승리였다. 역사적 굴곡은 있었으나,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왔다.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공산주의가 설 자리는 없다. 풍요로운 대한민국은 공산주의와의 전

쟁 속에서 성장했다. 대한민국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라고 하는 반대한민국 세력과 반민주 세력의 공격에 대응하고 민주주의의 승리와 대한민국의 자유와 풍요를 얻기 위해서는 올바른 역사 교육이 우선돼야 한다.

우남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공산주의의 매국주의를 경계하면서 포용을 선포했듯이, 우리는 우리 역사를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직시하고 미래의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참고: 우남 이승만 건국 대통령 취임사

이승만

여러 번 죽었던 이 몸이 하나님의 은혜와 동포의 애호(愛護)로 지금까지 살아오다가 오늘에 이와 같이 영광스러운 추대(推戴)를 받은 나로서는 일변(一邊) 감격(感激)한 마음과 일변 심당(心當)키 어려운 책임을 지고 두려운 생각을 금하기 어렵습니다. 기쁨이 극(極)하면 우습으로 변하여 눈물이 된다는 것을 글에서 보고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요사이 나의 치하(致賀)하는 남여동포가 모다 눈물을 씻으며 고개를 돌립니다. 각처에서 축전 오는 것을 보면 모다 눈물을 금하기 어렵다합니다. 나는 본래 나의 감상으로 남에게 촉감(觸感)될 말을 하지 않기로 매양 힘쓰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목석간담(木石肝膽)이 아닌만치 뼈에 맺히는 눈물을 금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40년 전에 잃었던 나라를 다시 찾는 것이요 죽었던 민족이 다시 사는 것이 오늘 이에서 표면(表面)되는 까닭입니다.

대통령 선서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포 앞에서 나의 직무를 다하기로 일층(一層) 더 결심하며 맹서합니다. 따라서 여러 동포들도 오늘 한층 더 분발해서 각각 자기의 몸을 잊어버리고 민족전체의 행복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국민 된 영광스럽고 신성한 직책을 다 하도록 마음으로 맹서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에게 맡기는 직책은 누구나 한사람의 힘으로 성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중대한 책임을 내가 용감히 부담할 때에 내 기능이나 지혜를 믿고 나서는 것이 결코 아니며 전혀

애국남여의 합의 협력함으로만 진행할 수 있는 것을 믿는 바입니다. 이번 우리 총선거의 대성공을 모든 우방들이 칭찬하기에 이른 것은 우리애국남여가 단순한 애국정신으로 각각 직책을 다한 연고(緣故)입니다. 그 결과로 국회성립이 또한 완전무결한 민주주의제로 조직되어 2, 3 정당이 그 안에 대표가 되었고 무소속과 좌익색태(左翼色態)로 주목받은 대의원이 또한 여럿이 있게 된 것입니다.

기왕 경험으로 추측하면 이 많은 국회의원 중에서 사상충돌로 분쟁분열을 염려한 사람들이 없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중대 문제에 대하여 종종 극열한 쟁론(爭論)이 있다가도 필경(畢竟) 표결될 때에는 다 공정한 자유의견을 표시하여 순리적으로 진행하게 되므로 헌법제정과 정부조직법을 다 민의대로 종다수 통과된 후에 아무 의 없이 다 복종하게 되므로 이 중대한 일을 조속한 한도 내에 원

만히 채결하여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된 것이니 국회의원 일동과 전문위원 여러분의 애국성심으로 우리가 다 감복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나는 국회의장의 책임을 사면하고 국회에서 다시 의장을 선거할 것인데 만일 국회의원 중에서 정부처장으로 임명될 분이 있게 되면 그 후임자는 각기 소관 투표구(所管投票區)에서 갱선(更選)하게 될 것이니 원만히 표결된 후에 의장은 선거할듯하며 그동안 부의장 두 분이 업무를 대임(代任)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의장 두 분이 그동안 의장을 보좌해서 각 방면으로 도와 협의 진행케 하신 것을 또한 감사히 생각하는 바입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조직에 대해서 그간 여러 가지로 낭설이 유포되었으나 이는 다 추측적 언론에 불과하여 며칠 안으로 결정 공포될 때에는 여론상 추측과는 크게 같지 않을 것이니 부언낭설(浮言浪

說)을 많이 주의(注意)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부를 조직하는데 제일 중대히 주의할 바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일 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 것입니다. 둘째로는 이 기관이 견고해져서 흔들리지 않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사회명예나 정당단체의 세력이나 또 개인사정상 관계로 나를 다 초월하고 오직 기능 있는 일군들과 함께 모여 앉아서 국회에서 정한 법률을 민의대로 진행해 나갈 그 사람끼리 모여서 한 기관이 되어야 할 것이니 우리는 그 분들을 물색하는 중입니다. 여러분들은 인격이 너무 커서 적은 자리에 채울 수 없는 이도 있고 큰 자리를 채울 수 없는 이도 있으나 참으로 큰 사람은 능히 큰 자리에도 채울 수 있고 적은 자리에도 채울 수 있을 뿐 아니라 적은 자리 차지하기를 부끄러이 하지 않습니다.

기왕에도 누가 말한바와 같이 우

리는 공산당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산당의 매국주의를 반대하는 것이므로 이북의 공산주의자들은 절실히 깨닫고 일제히 회심개과(悔心改過)해서 우리와 같은 보조를 취하여 하루바삐 평화적으로 남북을 통일해서 정치와 경제상 모든 복리를 다같이 누리게 하기를 바라며 부탁드립니다. 만일 종시(終始) 깨닫지 못하고 분열을 주장해서 남의 괴뢰(傀儡)가 되기를 감심(甘心)할진대 인심이 결코 방임(放任)치 않을 것입니다. 대외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세계 모든 나라와 친선해서 평화를 증진하며 외교 통상에 균등한 이익을 같이 누리기를 절대 도모할 것입니다. 교제상 만일 친선에 구별이 있으면 이 구별은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요 타동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어느 나라든지 우리에게 친선한 나라는 우리가 친선히 대우할 것이요 친선치 않게 우리를 대우하는 나라는

우리도 친선히 대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과거 40년간에 우리가 국제 상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 것은 세계 모든 나라가 우리와 접촉할 기회가 없었던 까닭입니다. 일인(日人)들의 선전만을 듣고 우리를 판단해 왔었지만 지금부터는 우리 우방들의 도움으로 우리가 우리나라를 찾게 되었은즉 우리가 우리일도 할 수 있으니 세계 모든 나라들은 남의 말을 들어 우리를 판단하지 말고 우리 하는 일을 보아서 우리의 가치를 우리의 중량대로 판정해주는 것을 우리가 요청하는 바이니 우리 정부와 민중은 외국의 선전을 중요히 역이어서 평화와 자유를 사랑하는 각국 남녀로 하여금 우리의 실정을 알려주어서 피차에 양해를 얻어야 정의가 상통하여 교제가 친밀할 것이니 우리의 복리만 구함이 아니요 세계평화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새 나라를 건설하는데 새로운 정부가 절대 필요하지마는 새 정

신이 아니고는 결코 될 수 없는 일입니다. 부패한 정신으로 신성한 국가를 이룩하지 못하나니 이런 민족이 날로 새로운 정신과 새로운 행동으로 구습을 버리고 새 길을 찾아서 날로 분발 전진하여야 지나간 40년 동안 잃어버린 세월을 다시 회복해서 세계 문명국에 경쟁할 것이니 나의 사랑하는 삼천만 남녀는 이날부터 더욱 분투용진(奮鬪勇進)해서 날로 새로운 백성을 이룸으로서 새로운 국가를 만년반석(萬年盤石) 위에 세우기로 결심합니다.

대한민국 30년 7월24일

대한민국 대통령 이승만

출처: (『대통령이승만박사담화집』, 공보처, 1953)

2. 새역사국민운동 소개

AI

새역사국민운동은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자유·국민국가·시장경제의 관점에서 다시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재정립하겠다는 취지로 출범한 시민·역사운동이다. 공식 표어는 “사실과 자유가 승리한다”이며, 공식 홈페이지는 운동의 목표를 “자유 의 이념으로 국가 정체성을 재건할 시민군을 조직하고, 건국과 성장의 역사를 전파하여 젊은 미래 정치세력을 육성”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1]

공식 명칭은 주로 ‘새역사국민운동’으로 쓰이지만, 성명서나 언론 보도에서는 ‘새역사국민운동본부’라는 명칭도 사용되고 있다. 뉴스레터도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그림: 새역사국민운동본부의 뉴스레터

창립 배경

이 운동은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기가 단순한 정당정치의 실패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건국과 발전에 대한 역사 인식의 혼란에서 비롯되었다고 진단한다. 특히 대한민국의 건국·호국·산업화 역사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민중·민족주의적 역사관이 교육·언론·문화계를 지배하고 있다고 본다.

2026년 7월 4일 대구에서 열린 창립 기념 학술토론회에서 이영훈

공동대표는 보수 정치세력의 위기가 “역사의식의 부재”와 관련되어 있다며 새로운 역사관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5·18민주화운동의 재조명」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2]

핵심 목표

새역사국민운동의 활동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새역사국민운동의 활동 방향

분야	주요 내용
국가 정체성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초한 근대 국민국가로 인식하고 그 정체성을 확립
역사 재해석	건국·호국·산업화·민주화를 대한민국의 발전과 성취를 이루어 온 역사적 과정으로 평가
역사교육 비판	현행 한국사 교육에서 나타나는 민족주의·민중주의 중심의 역사서술을 비판하고 균형 있는 역사교육을 강조
인물 재평가	이승만·박정희 등 건국·호국·산업화 과정의 주요 지도자들의 역할과 공과를 재조명
시민교육	강연·아카데미·세미나·영상·출판 등을 통해 대한민국 역사와 자유민주주의에 관한 시민교육을 확대
청년 육성	자유의 가치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청년 지도자와 미래 정치·사회 인재를 발굴·육성
국제정세	중국의 팽창, 북한 문제, 대만해협 등 국제정세를 대한민국의 안보와 자유체제 수호라는 관점에서 분석

공식 홈페이지는 교육, 새역사 아카데미, 청년교육, 학술연구, 공동연구, 강연회·북토크, 지역 지부 활동 등을 주요 사업 영역으로 제시하고 있다.[1]

네 가지 강령

새역사국민운동은 다음과 같은 4대 강령을 제시한다.

제1강령: “광주를 해방하라”

5·18민주화운동 자체를 단순히 부정한다기보다, 5·18이 이후 특정한 민중·민족주의 또는 정치적 이념에 의해 독점적으로 해석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5·18의 발생 과정, 군과 경찰 지휘부의 책임, 김대중의 ‘광주정신’ 해석, 1987년 이후 정치적 활용 등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

이 강령은 기존의 5·18에 대한 공적·법적·사회적 평가와 충돌할 수 있어 네 강령 가운데 가장 논쟁적인 부분이다.

제2강령: “한국사 교육을 중단하라”

이는 한국사 자체를 가르치지 말자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라기보다, 현재의 한국사 교육 체계와 교과서 서술을 전면적으로 중단·재검토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이다.

운동 측은 현행 역사교육이 다음과 같은 경향을 보인다고 비판한다.

첫째, 전근대 조선사회를 지나치게 이상화한다.

둘째, 개항·식민지·대한민국 수립 과정을 민족적 피해와 저항 중심으로 서술한다.

셋째,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적 의의를 축소한다.

넷째, 이승만 정부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립과 6·25전쟁 수행을 과소평가한다.

다섯째, 산업화와 시장경제 발전의 성과보다 권위주의와 사회적 부작용을 강조한다.

공식 홈페이지에는 이영훈의 한국사 교과서 비판 강의와 전근대사·근현대사 ‘팩트체크’ 자료가 연재되고 있다.[3]

제3강령: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 집권은 정당하였다”

이 강령은 두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오늘날의 철차적 민주주의 기준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운동 측의 논리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 이승만 정부는 공산주의의 위협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고 6·25전쟁에서 국가를 수호했다.

둘째,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통해 대한민국의 장기적 안보 기반을 마련했다.

셋째, 박정희 정부는 빈곤국가를 산업국가로 전환하고 자립경제와 국가안보의 기반을 구축했다.

넷째, 냉전·전쟁·빈곤·체제경쟁이라는 당시의 역사적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다섯째, 장기 집권의 권위주의적 요소와 별개로 국가 건설 및 경제발전의 성과를 정당하게 평가해야 한다.

공식 강령의 표현은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 집권은 정당하였다”이며, 단체는 이를 대한민

국의 건국·호국·부국 과정에 대한 재평가와 연결한다. [4]

제4강령: “자유 대만의 수호를 위한 국제전쟁에 참가한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이를 단순한 양안 간 지역분쟁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중국 공산당 체제 사이의 국제적 체제전쟁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운동 측은 대만의 자유체제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의 안보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도 직접적인 위협을 받게 된다고 본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자유 대만의 방어를 위한 국제적 대응에 참여할 의지와 이념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조직

공식 조직 소개에 따르면 공동대표는 다음 세 명이다.

- 이영훈: 이승만학당 교장, 서울대학교 정년교수
- 최성락: 목포대학교 명예교수
- 류석춘: 연세대학교 정년교수

운영위원으로는 역사·언론·교육·사회 분야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5]

주요 활동

새역사국민운동은 단순한 역사연구단체보다는 학술연구와 시민운동을 결합한 조직을 지향한다.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다.

<새역사 특강>

대한민국의 정체성, 근대화, 이승만, 박정희, 한국사 교과서, 공산주의와 그람시주의 등을 주제로 정기 강연을 개최한다. 제1회 특

강에서는 문화평론가 최범이 ‘대한민국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한국 근대와 대한민국의 국가적 성격을 다루었다. [6]

<학술토론회와 심포지엄>

2026년 7월 4일 대구에서 창립 기념 학술토론회를 열었으며, 이영훈·김용삼·주동식·류석춘 등이 5·18의 역사적 의미와 전개 과정을 발표했다. 보도에 따르면 시민과 관계자 약 500명이 참석했다. [7]

<역사 팩트체크>

전근대사와 근현대사로 나누어 한국사 교과서의 서술, 역사적 통계, 인물과 사건에 대한 기존 해석을 비판하는 영상과 글을 제공한다. [3]

영상·출판 활동

새역사국민운동TV, 이승만TV 등과 연계해 강연 영상, 역사 해설,

신간 소개, 인물 재평가 콘텐츠를 제작한다. [1]

<뉴스레터와 지역 활동>

정기 뉴스레터를 발간하고 지부 활동, 후원회원 모집, 지역 강연회와 학술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2026년 6월과 7월 뉴스레터가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되었다. [8]

<해외 한인사회 강연>

2026년 6월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달라스 등지에서 ‘새역사 국민운동’ 강연회가 열렸다. 이영훈은 대한민국의 건국·호국·고도성장·민주화를 자유 이념에 입각한 역사적 성취로 평가하고 이를 다음 세대에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9]

운동의 성격과 특징

새역사국민운동은 다음 세 가지 성격을 동시에 갖는다.

첫째, 자유주의적 대한민국 정체성 운동이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1919년 민족 운동에만 두기보다, 1948년 자유민주주의 국민국가의 성립과 이후의 국가 건설 과정에서 찾는다.

둘째, 기존 역사학과 역사교육에 대한 비판운동이다.

한국의 주류 역사학과 교과서가 민족주의·민중주의·반일주의에 치우쳤다고 보고, 통계·사료·국제비교를 통한 역사 재검토를 주장한다.

셋째, 정치·사회운동을 지향한다.

역사연구에 머물지 않고 시민조직과 청년교육을 통해 미래 정치세력을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공개적으로 제시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학술단체보다 정치적·사회운동적 성격이 강하다 [1].

종합

새역사국민운동은 “대한민국의 위기는 역사 인식의 위기”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식민지 피해·분단·독재 중심으로 해석하는 기존 관점에서 벗어나,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건국, 공산주의로부터의 국가 수호,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중심으로 역사를 다시 서술해야 한다는 운동이다.

다만 5·18, 역사교육 중단, 두 대통령 집권 정당화, 대만전쟁 참여와 같은 강령은 매우 강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상당한 논쟁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이 운동은 역사연구단체이면서 대한민국의 역사관·국가관·안보관을 올바르게 세우기 위한 시민운동으로 규정할 수 있다.

참고자료

[1]: https://newkoreanhistory.kr/?utm_source=chatgpt.com "새역사국민운동"

[2]: https://new.hanmilbo.kr/news/view.php?idx=10555&utm_source=chatgpt.com "'우리
가 모르는 5·18'... 이영훈·김용삼·주동식 등 '광주' 새롭게 조명"

[3]:

https://newkoreanhistory.kr/52/?bmode=view&idx=170904822&q=YToxOntzOjEyO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Jt9&t=board&utm_source=chatgpt.com "이영훈의 한국사교과
서 비판 8: 뒤쫓아 가다가 길을 잃은 역사 : 새역사국민운동"

[4]: https://newkoreanhistory.kr/25?utm_source=chatgpt.com "제1강령: 광주를 해방하라"

[5]: https://newkoreanhistory.kr/26?utm_source=chatgpt.com "조직 소개"

[6]:

https://newkoreanhistory.kr/47/?bmode=view&idx=171476820&utm_source=chatgpt.com "
새역사특강 제1회 대한민국은 무엇인가? / 문화평론가 최범 : 새역사국민운동"

[7]:

[https://tk.newdaily.co.kr/news/section_list_all.html?catid=2&pn=3&utm_source=chatgpt.c
om](https://tk.newdaily.co.kr/news/section_list_all.html?catid=2&pn=3&utm_source=chatgpt.com) "Save Internet 뉴데일리"

[8]: https://newkoreanhistory.kr/57?utm_source=chatgpt.com "새역사국민운동"

[9]: https://www.koreadaily.com/article/20260603185603995?utm_source=chatgpt.com "'새
역사 국민운동' 특강 개최...이승만 기념사업회"

3. 우남이 수강한 역사강의

양준모

우남 이승만 건국 대통령(우남)께서는 미국 하버드 대학교 재학시절 “1789년까지의 미국 역사(American History to 1789)”라는 “역사 10 과목(History 10)”을 수강했다.

History 10은 두 학기 동안 진행되면서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1789년까지의 역사를 다룬다. 1789년은 조지 워싱턴(George Washington)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해이다. 하버드 대학은 조지 워싱턴이 취임한 시기를 기점으로 시대를 구분하여 교과과정을 편성했다. 독립선언과 전쟁, 그리고 연방 헌법의 승인과 연방 정부 수립의 과정을 거쳐 조지 워싱턴이 취임함으로써 미국은 영국 식민지에서 벗어나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됐다.

1907년 하버드 대학교의 수강편람을 확인해 보면, 채닝 교수와 조수(Assistant)가 월, 수, 금 오전 11시에 이 과목을 강의한 것을 알 수 있다. 우남의 노트를 보면 무어 교수가 조수 역할을 담당했음을 알 수 있다. 첫 시간에 제시된 과목을 수강하는 데에 필요한 참고문헌 중 헨리 롯지(Henry Cabot Lodge) 교수의 책 “A Short History of the English Colonies in America”는 지금도 쉽게 구입할 수 있다. “History 10”은 매우 수준 높은 미국 식민지 시대의 역사를 다루는 과목이다.

우남의 하버드 수강노트에는 흔히 볼 수 없는 숨은 이야기가 담겨 있다. 외교권을 빼앗긴 조선의 유학생 우남이 미국의 영국 식민지 시대를 배우는 마음은 착잡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우남은 청나라로부터의 독립을 환호하고 새로운 조선을 꿈꾸었다. 만민공동회에서 소리치던 우남은 아무도 조선을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억압하는 현실에서 미국의 식민지 시대 역사를 공부하면서 큰 위안을 받고 독립의 희망을 갖게 됐을 것으로 보인다.

우남은 유학 시절 마음 편히 살 수 없었을 것이다. 우남은 조선의 상황을 호소하는 연설을 하며 미국을 돌아다니고 교민들을 돕는 생활을 했다. 우남은 공부에만 집중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우남은 조국을 걱정하고 교민들은 우남에 의지했다. 수강노트에는 스티븐슨 저격 사건이 발생하자 교민들이 우남을 찾는 전보를 보내온 사실이 적혀 있다. 수강노트에는 전보의 내용에 대한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전보 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남의 착잡한 심정이 적혀 있었다. 우남이 하버드

대학의 대학원에서 배운 복잡한 미국의 영국 식민지 시절에 관한 이야기는 우남의 향후 독립 운동과 대한민국의 건국, 그리고 정치과정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History 10”의 강의 내용을 살펴보면, 미국의 역사는 현재에도 미국 정치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역사를 진실되게 배워 현재의 교훈으로 되새기는 일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고 앞세대의 헌신을 배워 미래를 풍요롭게 만든다.

“History 10”은 신대륙의 초기 탐험부터, 유럽 열강의 개입과 식민지 건설, 정치·경제·사회·종교 체제의 발전, 그리고 결국 독립 전쟁을 통한 미국 국가 형성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영국 식민지의 복잡하고 다층적인 전개 과정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를 통해 이 강의는 미국이 식민지에서 독립하여 오늘날의 민주주의 국가로

발견하기까지의 역사적 맥락과 그 조건들을 면밀히 탐구하고 있다. 이 강의 자료는 단순히 우남이 미국 식민지시대의 역사를 공부했다는 점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 미국인의 사고와 향후 역사발전의 방향을 이해하는 데에 큰 도움을 주는 자료라고 생각한다. 우남이 이러한 내용의 강의를 듣고 대한민국의 임시정부를 이끌 때와 건국 이후에 국제 사회의 승인을 얻고자 노력했으며, 각종 논설을 통해 자강을 외치고, 외교를 통해 독립될 수 있다는 굳은 신념을 갖게 됐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버드 대학교의 1907-1908년 당시 역사 교육은 객관적 사실과 역사적 현실 속에서의 논리적 전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하버드 대학교의 역사교육에서 미화된 부분도 없다. 그들의 역사교육은 잘못 알려진 것을 바로잡고, 역사의 발전과정을 감정없이 기술

하고 있다.

콜럼버스가 미대륙을 발견한 것으로 말하지 않았다. 바이킹이 그린란드와 빈랜드(Vinland)를 발견하고 교류가 있었음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면서 미국의 역사를 시작한다. 탐험과 발견의 차이, 서구 중심의 생각에 대한 경고 등 민족주의로 무장한 단군신화와는 거리가 먼 역사 기술이다.

청교도의 아름다운 이야기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식민지 형성과정에서 다양한 동기에 의해 신대륙을 탐험하고 식민지를 건설하는 모습들을 가르친다.

강의노트에는 영국 식민지로서의 영국의 정치와 식민지의 관계도 기술되어 있고, 프랑스와 스페인 등의 관계도 기술하고 있다. 우남은 한 나라의 독립이 제국과 식민지만의 관계로 해결될 수 없음을 배웠을 것이다.

우남의 낙서에는 신앙심이 깊으면

편협해진다는 내용이 있다. 식민지 역사에서 종교문제는 큰 이슈였다. 영국과 대륙의 종교 탄압으로 미대륙을 찾은 사람들이 신앙심으로 미대륙을 개척했다. 그러나 또다른 신앙 갈등이 미대륙에서도 발생한다. 부랑자와 범죄인들도 미대륙에 들어왔다. 부녀자들이 결혼을 위해 수입되기도 했다.

여러 개파들이 자신들의 종교적 자유를 위해 투쟁한다. 종교를 위해 독립적 식민지를 만들기도 한다. 윌리엄 펜이 왕의 현장을 받아 개척한 펜실베이니아가 그 예이다. 관용법이 만들어지고 종교의 문제가 수면 아래로 내려갔지만 종교의 문제는 갈등과 발전의 한 축이었다. 미국의 역사 교육은 이러한 갈등을 숨기지 않았다.

노예제도에 대한 변명도 없다. 노예제도가 어떻게 발전했으며, 미대륙에 어떻게 도입됐는지 차분하

게 설명됐다. 인종차별의 문제도 객관적으로 기술됐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매우 달랐다. 백인노예도 있었다. 노예와 구별되는 계약제 노동자, 자유인 등 다양한 형태의 근로제도도 기술돼 있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역사교육은 식민지 마다 다른 제도를 운영했고, 영국 제도를 따르면서 식민지 현실적 필요에 따라 변화하는 제도에 대한 이해를 갖게 한다.

대한민국의 역사 교육도 역사적 사실에 입각하여 당시 상황과 고민들, 그리고 대응 방안들을 가르치고 역사적 교훈을 통해 미래를 개척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면 하는 바람이 생긴다.

이승만연구원 소식

연세대학교 이승만연구원 소식

1. 하와이 강연

연세대학교 이승만연구원 원장 양준모 교수는 2026년 6월 26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한미동맹재단, 건국대통령 이승만재단, 우남소사이어티 협찬으로 특별강연회를 가졌다.

한인사회

'대한민국 성공의 출발점' 강연 성황리 열려

연세대학교 이승만연구원, 하와이에서 특별 강연

하와이K미디어

입력 2026.06.29 12:17 | 수정 2026.06.30 04:07 | 댓글 0

f X ㉞ ㉟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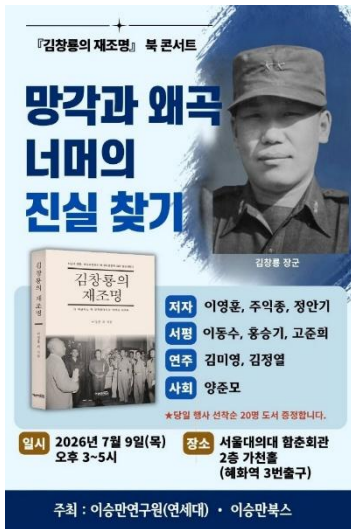
가



강연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 김창룡의 재조명 북콘서트 개최

연세대학교 이승만연구원 (원장 양준모)는 이승만복스와 공동으로 2026년 7월 9일 함춘회관에서 김창룡의 재조명 북콘서트를 개최하였다.



3. 우남자유포럼 개최

연세대학교 이승만연구원 (원장 양준모)는 2026년 8월 21일 연구원에서 이승만 정부의 재정운영 평가라는 주제로 우남자유포럼을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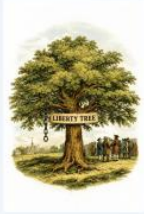
우남자유포럼

이승만 정부의 재정운영 평가

일시: 2026년 8월 21일(금요일) 오후 4시
 장소: 연세대학교 이승만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37길 11]

사회: 양준모 (연세대학교 이승만연구원 원장)
 발표:
 옥동석 교수 (인천대학교 명예교수)
 이승만 정부의 재정: 재정민주주의의 기반

토론
 김재호 교수 (전남대학교 교수)
 임종훈 교수 (전 입법조사처장)
 전수경 박사 (국회 예결위 교섭단체 수석전문위원)



연세대학교 이승만연구원 발전기금
우리은행 2659-3916818-478

이승만연구원 광고

연세대학교 이승만연구원 친우회 모집

연세대학교 이승만연구원 친우회 회원모집

The League of Friends of the Syngman Rhee Institute

친우회 목적

이승만 대통령을 존경하고 그의 정신을 계승 발전 시키며
친우회를 통해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나아가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연세대학교 이승만연구원을 중심으로 학술활동을 촉진하고 사회발전에 기여



해외 독립운동가들은 독립 외교를 위해 친우회를 조직하고 독립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 하셨습니다. 이승만 건국대통령도 현미협의회 등 친우들과 함께 독립을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이승만연구원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친우회를 조직하여 활동하고자 합니다.

1. 회원자격 자유를 사랑하며 이승만연구원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친우회 규약을 지키는 개인과 법인
2. 회비 법인회원: 연 500만원
개인회원: 연 10만원
3. 회원 특전
 - 연구원 발간 잡지 무료구독
 - 연구원 출판물 50% 할인
 - 개인 회원은 가입 즉시 이승만 일가(정가 36000원) 및 독립정신(소장본)을 드립니다.
 - 년 1회 회원의 날 행사 / 체육 및 문화 행사 초청
 - 각종 봉사활동 참여
 - * 회원 특전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음.
4. 가입 방법 이승만연구원 이메일(smrhee@yonsei.ac.kr)에 연락처와 주소, 성함을 남기고 회비를 납부
5. 가입 방법 이승만연구원 이메일(smrhee@yonsei.ac.kr)에 연락처와 주소, 성함을 남기고 회비를 납부 (우리은행 126-00-036-818919)
*자세한 문의는 전화번호 02-3216-7742로 문의 바랍니다.

이승만연구원 광고

연세대학교 이승만연구원 발전기금

연세대학교 이승만연구원은 우남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전집발간사업과 우남자유포럼, 연구지원 사업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연구하는 연세대학교의 연구기관입니다. 여러분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確 認 書

○ 계 좌 명 : 이승만연구원발전기금

○ 계 좌 번 호 : 26593916818478

○ 예 금 주 명 : (학) 연세대학교

○ 개 설 은 행 : 우리은행 연세지점

※ 후원자분께서 전기금을 입금하시고 smrhee@yonsei.ac.kr로 알려주시면 연말정산시 세금 공제를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Pacific Magazine

발행인: 양준모

출판사: (사)산업에너지환경연구소

출판사 신고일: 2017년 8월 31일

ISSN: 3140-4324-63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8, 913호

이메일: ieeifnf@gmail.com

※ 광고 문의는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